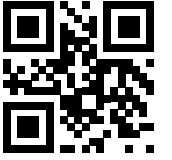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285호 2018년 1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힘찬 도약,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



신년사

경애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님:

이제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더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금년은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발족한 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문님들께서 온갖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머나

먼 이국땅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계신 것처럼, 우리 미주 동창회도 27년이 지난 지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매우 건재함을 여러 동문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전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으며,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미주 지역으로 유입되는 젊은 동문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 동문들의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동문 수의 격감과 그로부터 오게 되는 미주 동창회 운영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도 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평의원회의에서 구상된 서울대 미주 동창회 기금 즉 "SNUAAUSA CENTURY FOUNDATION"을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제14회기 회장단이 들어선 후 지난 6개월간 12분의 동문들께서 종신 이사님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하신 종신 이사님의 수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동문님들께서 기금 설립의 중요성을 동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15년간 "종신 이사회 기금"으로 22 만 불 정도 축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동문들을 종신 이사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하며, 축적된 기금은 안전한 투자나 높은 금리로 보다 더 나은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창회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기꺼이 기부를 해주신 동문님들은 미주 동창회의 주축으로서 동창회 역사에 영구히 남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와서 언어 장벽과 생활 풍습의 차이를 극복해 가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살고 있으며, '서울대 미주동창회'라는 큰 배 위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모두 참여해 협력할 때 힘차게 순항을 하여 목적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 떠오르는 새해 아침의 햇살처럼 금년은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힘차게 도약하는 찬란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HAPPY NEW YEAR!!!

윤상래 드림 (수의대 62입)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성낙인 (법대 55)

서울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자로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는 인류와 같이 생활하여 온 유일한 동물로서 친화력이 뛰어나고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더 충실히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더 강한 책임감과 실천력을 보이라는 것이 황금개띠 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동양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보자면 9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Dollar)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인 신생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간난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받는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후발국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이 배양한 민주적 발전역량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 해였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타 올랐고, 주권국민의 시대사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각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 공감의 광장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자칫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을 그 위기적 상황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극복하여 낸 것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

신년사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배양은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와 이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은...「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세계와 함께 하

는 대학!」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문(自問)하여야 합니다. ”

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共同善),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입니다. 사회는 희생과 양보라는 이타적 덕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런 덕성을 내면화한 존재를‘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시민개념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미래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움켜쥐 70년 성상의 대한민국을 더 원숙한 국가로, 더 매력적인 국가로, 더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야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올해 무술년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성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올해

는 제가 교육이념으로 줄곧 제시하여 온 ‘선(善)한 인재상’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이 바로 선한 인재가 추구하여야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 동안 ‘선한 인재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만만한 기부’ 모금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합리적 합일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도록 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지성과 덕성을 고루 갖추도록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업적과 성과를 기반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한층 승화된

일정 정도 이상 기반을 잡고 한층 견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우선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후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대학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하여 왔습니다. 거버넌스 조직과 시스템, 제반 규정들을 법인화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화 7년차를 맞이하여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며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등 학내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총장 선출제도에 관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대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등 개별법 개정 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법인의 세금문제와 자산운영에 관한 쟁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운영 목표로 새로운 지식 창조 선도자로서의 위상 확립, 법인 체제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 선(善)한 인재양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도입하고 추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효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의적 선진연구자 지원, 소득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3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 제공, 14개에 이르는 SNU in the World Program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및 교류 확대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사항들이 산적하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존 천원의 아침, 저녁 식사를 점심까지 확대하여 전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실을 이루도록 선한인재양성에 호응하여 주신 기부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해, 저의 부덕으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문제가 많은 논란 끝에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학생 처벌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을 책임진 총장이자 학자로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은 자율적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자숙과 진취적 각성을 통하여 인간적 성숙을 이끌어 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징계처분의 해제를 결단하기에 이른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추진하여 왔던 정책적 사업이



서정화 (법대 51)

총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과 모교 교수님 여러분, 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 존경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대학교다운 총동창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35만 서울대인 모두를 찾아 함께 결속하고, 전 세계 10개국에 총동창회를 창립하였으며, 동경대학교우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한 35만 서울대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외로 결속한 35만 서울대인은 입학과 졸업 10년 주기별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도 판형과 제호를 변경하여 한 번 더 보고 싶은 총천연색 신문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었고, 모교와 동문, 총동창회 소식에 보다 쉽게 접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총동창회 주관 행사는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란 그 이름에 걸맞도록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품격 높게 운용하였으며, 행복기부콘서트를 기획하여, 동문,

이렇듯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섬기고 다가가는 총동창회, 서울대학교다운 격 높은 총동창회로 재정립해온 결과 취임

당시에 비하여 회비납부 동문의 증가 수는 4배, 각종 행사 지원금의 규모는 3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장학금 모금 규모는 1

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외로 결속한 35만 서울대인은 입학과 졸업 10년 주기별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이제 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 존경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

교직원, 재학생은 물론이고 관악구민도 1천명 이상 초청하여 이웃과 나누는 서울대,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의 마음과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총동창회 사무처도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장학빌

딩 주차시설을 수익 자산화하고 기념품과 특별사회전 등 애교심을 고양시키면서 장학금도 확충하는 화목적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공익친목단체 운영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아 타 대학동창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렇듯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섬기고 다가가는 총동창회, 서울대학교다운 격 높은 총동창회로 재정립해온 결과 취임당시에 비하여 회비납부 동문의 증가 수는 4배, 각종 행사 지원금의 규모는 3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장학금 모금 규모는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35만 서울대인 여러분은 곧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엄정한 존재입니다. 우리 총동

창회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인 35만 서울대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도와드리고 섬기겠습니다.

모교와 조국에게 참으로 중차대한 한 해가 될 2018년을 맞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서울대인은 희망과 희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35만 서울대인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한 서울대인의 소명으로 함께 하십시오. 국민에게

겸손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제 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 존경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

이제 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 존경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

이제 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 존경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입니다(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오래된 미래’ 즉 이미 가시화된 21세기적 변동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의 주요 국가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축전이라고 하여야 할 세기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로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문화예술적 역량 또한 첨단과학기술과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선도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시흥캠퍼스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여 미래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대학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나가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입니다. 재학생들의 취업알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한국형 Hand-shake’ 전산시스템을 모교와 함께 구축하였고 채용 박람회도 매년 모교와 함께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대해서도 매년 15억 원씩 10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기초과학분야 연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모교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 모두는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의 직접지도와 교수님,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한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서울대인 여러분의 진심어린 협조에서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35만 서울대인 여러분은 곧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엄정한 존재입니다. 우리 총동창회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인 35만 서울대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도와드리고 섬기겠습니다.

모교와 조국에게 참으로 중차대한 한 해가 될 2018년을 맞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서울대인은 희망과 희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35만 서울대인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한 서울대인의 소명으로 함께 하십시오. 국민에게 겸손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35만 서울대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 1. 5.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 정 화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를 갖습니다.

1. 신년사, 윤상래
2. 신년사, 성낙인
3. 신년사, 서정화
4. 기고: 2018년 새해 소망, 이항렬 / 연구자 원지 물렸던 시절, 조창희
5. 기고: Preservation of the night sky, 박재현 / 2018년 세계경제: 회복이나 침체나, 백순
6. 지부 소식: 시카고 동창회 / 북텍사스 동창회
7. 지부 소식: 남가주 법대 동창회 / 하트랜드 동창회
8. 지부 소식: 워싱턴 DC 동창회 / 샌디애고 동창회
9. 지부 소식: 뉴잉글랜드 동창회 / 미네소타 동창회
10. 지부 소식: 휴스턴 동창회 / 북가주 동창회
11. 동문 문단: 박윤수, 광상희, 조옥동
12. 지부 소식: 남가주 공대 동창회 / 남가주 음대 동창회
13. 부고: 송순영(宋舜英) (문리대 52) 동문 / 조사, 이용락
14. 기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박명일
15. 기고: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이원영
16. 지역동창회 회장 신년인사

17. 지역동창회 회장 신년인사
18. 기고: Ode to Black Widow Spider(‘검은 미망인’ 독거미 찬가), 이태성
19. 연재: 가발과 함께 걸은 나의 86년 인생, 이준행
20. 기고: 사람 만들기 -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 이원택
21. 기고: 사람 만들기 -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 이원택
22. 역사이야기: 크레덴 섬의 생명나무 전통, 최은관
23. 여행기: A Travel Journal, 에드워드강
24. 역사이야기, 여행기 계속
25. 후원금 집계
26. 동창회비 집계
27. 동창회비 집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28. 미주 동문 엽소록
29. 미주 동문 엽소록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종신이사회비
32. 광고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닭의 해 정유년이 가고 개해의 무술년 이 찾아왔다. 2017년 1월 1일에 닭이 우렁찬 울음으로 희망의 해를 약속하는 것 같더니 안타깝게도 한 해 동안 한반도, 우크레인, 시리아 지역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미국, 유럽에서도 폭력, 테러리즘의 성행으로 많은 애매한 시민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2018년은 무술년으로 개의 해라 하니 마치 김정은과 트럼프가 으르렁거리며 멍멍대는 해 같아 불안한 감이 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은 결국 전쟁, 폭력, 테러리즘을 제거하지 못할 것인가? 2018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 억압과 폭력사태 등으로 세계 평화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이런 불가능한 세계 평화보다 좀 작은 평화를 이변 무술년에는 소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즉, 나 자신의 평화와 가족 그리고 크게는 우리 서울대 동문 공동체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작은 평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자기의 평화를 찾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내심과 존경심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급한 성질은 심정에 평온을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심정이 평온하다고 하여도 건강이 나쁘면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없다. 내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행복을 위하여 올해에는 우리 좀 더 몸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또한 정신의 평화를 위하여 좀 더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우리에게는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할 것 같다. 가치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너무 공허할 것이며 허무한 인생을 영유할 것 같다. 평균 80여 년을 살고 다 죽게 되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짧은 평생 좀 더 즐겁고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위하여 극단주의를 피해야 할 것 같다. 정치적 극단주의자나 종교적 극단주의자는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아우성치니 이런 자들과는 멀리할수록 나에게 평화가 깃들 것 같다. 또한, 나도 독선적이며 극단주의자가 안되기 위해서는 내 말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며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올해에는 더 들어 볼 까한다. 가족이 가까워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서로의 잘못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나와 가족에게 평화가 더 올 것 같으면 나도 또한 더욱 평온

2018년

새해 소망

한 인간으로 사회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것 같다. 끝으로 가족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약인 경제적 돈 문제로 생각 안 할 수 없다. 부부생활에서 다툼의 주원인이 돈과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니 돈이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돈은 우리의 평온과 평화를 추구하는데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유혹과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악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극단의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엘라배마 상원 특별 선거에서 어린 여자 애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비난받은 Roy Moore 후보자를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당선되면 자기 세금 감세법을 지지할 것이라는 이유다. 또한, Roy Moore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그가 당선이 되면 현재 경제 호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가치 기준을 어기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사회가 형성되어 돈 없는 대다수의 사람은 희망이 줄어 들고 좌절감만 느껴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한인이 미국에 정착한 이유는 평화스러운 사회와 아이들이 교육 관계로 정착한 것이지 돈만 많이 벌기 위해 미국에 정착한 것은 아니다. 혹 간에 어떤 사람은 돈과 행복, 돈과 성공을 혼돈 하는데 이거야말로 불행할 자 초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동양의 현인 공자 말씀이 떠오른다. 인생의 길은 “중용”을 택하는 것, 즉 인생을 알맞게 살라는 것이다. 너무 잘 살라고 너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이 시기심이야말로 마음의 평온함에 금물이며 평화의 파괴 물이다. 부연하여 현재 서양세계의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인 법왕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하고 싶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세계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위와 같은 기도를 실천한다면 세계평화가 오지 않을까? 무엇보다 2018년에는 좀 더 알맞고 평화스러운 인간이 되고 싶다.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제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조장희 (공대 55)

연구가 뭘지

몰랐던 시절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경성제대의 일본 교수들이 모두 물러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다.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대학의 교수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경성제대’ 때의 일본 교수들의 실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의 학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서울대의 교수들은 당시 대학만 나오면 될 수 있었고 많은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이들이 교수가 되었다. 따라서 교수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왔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교수가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구시설과 세계적인 연구자와 학자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 외국은 몇 백 년의 연구 전통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능력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발맞추어 SCI(Science Citation Index) 라는 공인된 연구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활발히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요점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고 교수와 연구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 생각된다. 대학은 그 나라의 연구역량의 척도이며 연구역량은 그 나라의 국력이다. 중국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100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선별해서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대학은 가르치는 곳이라는 개념 탈피

연구를 하는 곳으로 변신해야

노벨상 수상 또한 연구역량에 달려 있어"

1950년 말과 60년 초에 들어서 서울대는 미네소타대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미네소타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이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되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하는 ‘학문 연구’의 집단이며 이 집단은 필히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간단한 개념이 우리나라 대학에는 없었고 우리는 대학이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과 대학들이 대학은 ‘가르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기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면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우리는 대학이 ‘가르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은 연구를 하는 대학으로 변신해야 하며 이런 연구는 많은 비용과 우수한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는 연구를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는 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한 교수 밑에서 어떤 문제가 연구의 대상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학생과 교수가 같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이다. 또한 연구는 아직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또 필히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증을 받아서 국제 전문학술지에 발간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학문적인 연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많은 선진 연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20 : 1 이므로) 5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선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한된 국가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볼 때 우리도 이에 준하는 몇 개의 선별된 대학을 선별 지원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긴 대학으로 연구중심대학이 어떻게 연구역량을 키우느냐와 연구역량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연구는 한 대학의 연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정치, 사회 질서 확립과 국방과 같은 10년, 20년 후에 한 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력의 기반이 되며 우리의 문화 역량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 역시 우리의 대학 연구 역량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는 우리가 문화 민족이라는 표상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학의 연구 역사가 짧아서 속생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 속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며칠에 걸쳐서 생체시계가 서서히 한국시간에 적응해 나가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이 정상을 되 찾아 가는 것이다. 이렇듯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인 생체시계가 혼란은 우리 몸의 건강 및 사회활동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출처: 충동창회보]

수원대 석좌 교수뇌과학연구소장

모교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특임연구위원



박재현 (자연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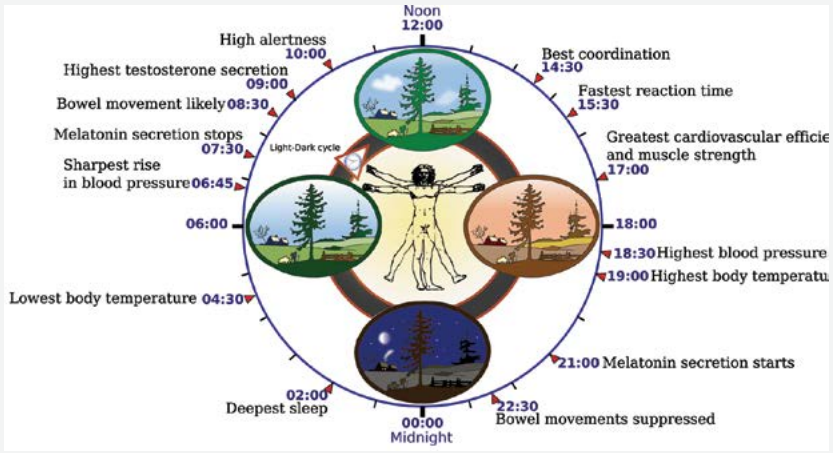
Preservation of the night sky

태양계가 생긴 이래 우리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하면서 (지역과 계절에 따라 정도차이는 있지만) 밤-낮의 싸이클에 항상 노출되어 왔고, 지구안에서 살아온 모든 생명체들은 그 24시간 간격으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오면서 생체시계를 (biological clock) 진화시켜 왔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세명의 미국 과학자, Jeffrey Hall, Michael Rosbash, Michael Young 에게 돌아 갔는데, 이들 중 Dr. Hall 은 필자가 한때 포스닥으로 몸 담았던 연구실의 주인이다. 이들의 약 30여년에 걸친 연구 업적은 생체시계를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여, 몇가지 핵심 단백질 분자들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를처럼 정교하게 상호작용하여 생체시계를 작동한다는

을 다스리가 된 후로 밤은 꾸준히 밝아져 왔다. 하지만 전기의 발견과 그 전기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 나면서, 이제 도시의 밤은 낮같이 환해지니, 밤하늘에 은하수가 사라졌다. 또한 생체시계의 교란을 초래하니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새로운 현대병을 초래한다.

어디 그 뿐인가? 인간들이 다스리게 된 밤의 희생자는 인간 자신들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 같이 살아온 많은 생명체들도 생체시계혼란의 피해자이고, 이는 생태계 혼란으로 가져와 멸종의 위기까지 초래한다. 일 예로 (https://conserveturtles.org/information-sea-turtles-threats-artificial-lighting/) 이 웹사이트에서는 해변에 알을 낳아서 생존해 온 바다 거북이들이 얼



것을 밝혀 낸 것.. 이 생체시계는 처음에는 환경의 변화 (특히 낮-밤의 일주기)에 적응하여 작동하지만, 일정기간의 트레이닝이 지나면, 낮-밤의 변화 없이도 (예로 24 시간의 밤) 자동으로 작동하여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circadian rhythm) 관리한다. 이러한 생체시계가 작동함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로 jet-leg 를 들 수 있다. 우리가 한국으로 여행할 경우 처음에는 시차에서 오는 극심한 피로를 격게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작동하던 생체시계가 미처 한국시간, 즉 새로운 밤-낮 주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며칠에 걸쳐서 생체시계가 서서히 한국시간에 적응해 나가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이 정상을 되 찾아 가는 것이다. 이렇듯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인 생체시계가 혼란은 우리 몸의 건강 및 사회활동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Light pollution 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각에서 벌어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소위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약칭IDA)”.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darksky.org) 하면 되겠지만, 이 운동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인조조명을 없앨 수는 없으니, 잘 다스려서 dark sky 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명을 없애고, 필요한 조명도 그 각도를 잘 조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밝히도록 하여 하늘의 어둠을 혼란시키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것. 1988 년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70여 개국에 수천명을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IDA 는 lighting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여기에 합당한 지역을 골라 IDA certified Dark-Sky Park 을

생체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는 light pollution. 인류가 불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2018년 세계경제:

회복이나 침체나

2017년을 마감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GDP 기준)은 2009년의 대경제침체 이후 가장 좋은 2.9%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2018년 세계 경제 전망 예측이 금년보다 약간 낮은 2.7%로 내다 보고 있지만, 세계 경제계에는 경제 회복(Recovery)의 고무적인 경제 현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에 반하여 2018년이나 2019년에 경제 침체(Recession)가 올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 회복의 고무적인 경제 실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선진경제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경제에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의 3% 보다는 낮지만 2%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현실이다.

미국은 실업률이 4.0% 전후로 일시장이 건전하고, 임금에 적은 수이지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소비자 용자가 늘고, 경제 감각이 10년내 최고이며, 고질적인 12%의 실업률이 8.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뜨는 경제(Emerging Economies)가 2018에도 건실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랜 슬럼프에 빠져 있던 브라질과 러시아가 2018년에는 2%의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고, 인도와 중국은 고도성장인 8%와 6.5%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5%의 성장,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3%의 성장을 이루리라는 전망이다.

경제회복의 고무적인 세계경제현실에 반하여 경제침체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지정하여 public education에 이용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기 주소를 (http://www.darksky.org/idsp/finder/?a=2.125830537.504801531.1513394760-2113113681.1513394760) 참조하면 흑자가 사는 지역 주변에 IDA certified dark-sky park 이 있는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생태계보존

조심스러운 예측은 3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근거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낮은 투자와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 연합경제, 노동력의 감퇴와 기업투자의 하락 등의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미국경제, 그리고 용자의 축소와 국가 자본주의 경제개혁의 불투명 등의 속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뜨는 경제인 중국경제 등이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의 근거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긴축 화폐정책이다. 2009년의 대경제침체를 풀기 위하여 0%에 가까운 단기이자율 정책과 \$4.5 트릴리온에 달하는 양적 완화정책을 얼마나 빨리,그리고 얼마나 많이 단기이자율을 올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느냐에 따라 경제침체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화폐 긴축정책은 많은 기업과 소비자의 부도, 주식시장의 커다란 조정, 뜨는 경제로부터의 거대한 자본유출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셋의 근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상 8년 내지 10년 주기의 경기변동이 일어 나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이 2009년 대침체이후 9년과 1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근거가운데 둘의 근거인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 긴축정책의 속도와 규모가 관심과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즉, 서서히, 그리고 적은 규모를 주장하는 비둘기파가 우세하냐 아니면 급하게, 그리고 큰 규모를 제창하는 매파가 앞 서느냐가 세계경제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매파가 제창하는 긴급통화신축은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Professor, Univ. of

Tennessee at Knoxville

시카고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시카고 동창회 (회장 한경진)의 총회 및 파티가 지난 12월 10일 Oakbrook Terrace 소재 Drury Lane 에서 120여 명의 동문과 Guests 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도 의 행사, 재무, 장학재단 보고에 이어, 홍혜 레 차기 회장단 인준과 소개, 차차기 회장 (김승주) 인준, 11명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2부 순서에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시카고 부부 합창단, 소프라노 주정은, 김형률의 Saxophone, 박신영 Piano 의 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김훈태 총무 주관으로, 푸짐한 상품과 함께 group game 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35 주년기념 동창회 주소 록 및 총람”이 배부되었다.
[기사제공: 한경진]



북텍사스 동창회 송년 파티 “최다 인원, 최고 경품, 친목 최상”

북텍사스 서울대 동창회(회장 이석호)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및 음악회를 많은 동문과 가족의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3일(토) 오후 5시부터 코요테릿지 골프장 연회실에서 열린 송년회는 8순의 원로 동문으로부터 90년대 학번의 젊은 동문들까지 고루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만찬 및 잔치마당이 됐다. 북텍사스 지역의 한인 유입 및 인구 증

가를 반영하듯, 이날 송년회는 달라스에 갓 이주한 동문들의 참여도 눈에 많이 띄었다. 7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이날 행사는 총무 김영훈 동문 사회로 시작돼 이석호 회장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이석호 회장은 “올해 임기를 시작해 오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창회 역사에 대해 회고하면서 “1986년 시작된 동창회가 2005년 장학회 사업을 개시해 당시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노력을 거쳐 동문회가 성장했고, 선배들이 동창회를 위해 매우 수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10여년간 부회장으로서 선배들의 노고를 지켜보게 된 이 회장은 “이번에 회장직을 맡게되면서 좀 더 준비하려고 애썼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음악공연과 여흥시간을 통해 더욱 화합하고 친목이 두터운 동창회를 만들어보자”고 전했다. 이어 소프라노 이은경 씨의 독창과 피아노 양경아 동문의 피아노 독주 등의 음악

회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은경 소프라노는 Martinnata, 신아리랑, 그리운 금강산을 독창했고, 양경아 동문은 Danzas Argentinas를 피아노 독주로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만찬 후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도미한 사연과 동창회 참석 등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유쾌한 개인 소개 순서를 통해 동문들 간 더욱 친밀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뤄졌다.

정기총회를 대신한 동창회 소개 및 동창회 활성화 제안 발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석호 회장은 “준비한 걸 모두 발표하려면 시간상 다 하기 어렵다”며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북텍사스 서울대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장학금 전달에 대해 더 확실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서울대 동창회가 올해도 춘계와 추계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친목 및 장학금 기금마련에도 보탬이 됐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이날 송년회는 회장단이 준비한 게임을 통해 경품 전달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국내선 무료 티켓을 비롯해 정복상 등 다양한 경품 40여점이 추첨을 통해 증여돼, 동문과 가족들 모두 풍성하면서도 흥겨운 마음으로 송년회 모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 교가 제창 후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서울대 동문회 회원들은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해 더욱 보람찬 동창회를 만들어가는 다짐과 함께 아쉬운 마음으로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이준열 기자]



남가주 법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지난 12월 12일 Oxford Palace Hotel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정인환, 법대 54) 주최로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이,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진석(법대 6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 정기총회는 정인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교가제창(피아노 반주: 제갈소망, 음대 02)에 이어 정인환 회장의 인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연(공대 68) 전 총동창회장,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 한효동 공대회장과 지난 많은 자료와 함께 동영상상영해 준 홍선례(음대 70) 문화

위원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석(음대 64) 교수와 음대의 두 후배도 감사합니다. 또한 임원들도 수고가 많았고, 법대동문들의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젊었을 때 인연이 있어 만난 모임보다 나이가 들어 만난 모임은 더욱 소중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법대모임에 꼭 참석할 것입니다.” 이어 참석자 소개로 이어졌는데, 초대 손님으로는 성주경(총동창회장, 상대 68), 강신용(수석부회장, 사대 73), 김지영(전 총동창회장, 사대 69), 김병연(전 총동창회장, 공대 68), 한효동(공대회장, 공대 58), 한구희(미래 회장, 미래 68), 김동석(전 총동창회장, 음대

64), 홍선례(문화위원장, 음대 70), 위진록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이창신(법대 57) 재무의 사업보고 및 재무보고가 있었고, 2018년 신입회장으로는 최진석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어 정인환 회장에게 1년 동안 수고한 노고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다음 최진석 신입회장의 “동문 유대 강화를 위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었고, 단체사진 촬영에 이어 점심식사로 이어지며, 홍선례 문화위원장이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법대 정기 오찬모임 사진을 슬라이드로 소개하였다. 사진은 2월14일: 용수산 한식당, 4월 11일: 조셉치 농장, 6월 13일: 용수산 한식당, 8월 8일: 작가의 집, 10월 10일: 용수산 한식당에서의 모임 사진이다. 이어 2부로 계속되었는데, 김동석(전 UCLA 민족음악과 교수) 동문이 “한국음악의 참 의미”라는 주제로, 가야금과 장구 등의 연주를 곁들이 열띤 강연에 모두 숙연한 분위기였다.



최진석 신입회장



가야금 김동석

다음은 소음악회로 계속 되어 최혜성(음대 99) 동문이 플루트 독주로 John Rutter's 작곡 Suite Antique를 연주하였고,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이 피아노 독주로 N. Kapustin 작곡 Variation Op. 41을 연주하였는데, 이 완숙한 연주는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다. 특히 제갈소망 동문의 앵콜곡인 크리스마스 캐를 메들리 연주는, 그 활기 차고 박력있는 연주에 동문들이 끊임 없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여 장내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다음 3부인 마지막 순서는 최진석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추첨 및 노래자랑 시간이었는데 이태로(법대 56), 홍세봉(법대 67), 한효동(공대 58) 동문 등이 가라오게 반주로 열창하였다. 특히 경품추첨에서 객질(법대 64, 전 총동창회장) 동문이 1등의 영예를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 했다. 동문들은 푸짐한 선물을 가슴에 안고 다음 만남 날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하트랜드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20차 정기 동창회 모임이 2017년 9월 16일 캔사스 주 오버랜드 파크 위치한 셰라톤 호텔에서 3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우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모임에서 2명에게 장학금 수여가 있었고, 친선골프 대회 시상이 있었다. 이어 김제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 총회에서 오명순 재무(가정 69)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동문의 밤에는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 참석하신 최은관 동문(상대 64)이 “한국인의 뿌리”라는 주제로 강연 후, 흥미진진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송년 모임

12월 2일에는 오명순 신입 동창회장 맥에서 35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팻렉 디너로 화기애애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주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모임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창피했던 일 등에 대해 참석한 동문 전부가 얘기하는 등 동문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



2018-2019년에 봉사할 임원:
회장: 오명순(가정 69), 부회장: 장영준(농대 83), 사무총장: 이주현(미래 92), 재무:임소연(음대 92), 섭외/체육: 이우영(사대 94)
이사장: 오택요(의대 56), 감사: 김준(문리 71),



장학위원장: 이치현(약대 77)
장학위원: 이상문, 이재명, 배규태, 김명자, 김은관, 구명순, 김제권, 이흥구, 이충양, 윤경진, 권준희,
당연직 장학위원(오명순, 오택요)





워싱턴 DC 동창회 송년 파티 - 나눔 실천하며 단합했던 한 해 -

워싱턴지역 동창회(회장 안선미)는 지난 12월 10일 (일) 저녁 버지니아 Vienna에 위치한 웨스틴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총회 및 연말 잔치를 열었다.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교가제창을 시작으로 1부에 총회를 가졌다. 2017년 5월 가족피크닉과 9월 자선음악회 등 올해 행사 보고 및 장학위원회 경과보고가 있었다. 지난 2년동안 장학위원장을 맡아온 한의생 (수의 60)동문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고, 새로운 장학위원장으로 함은선 (음대 77) 동문이 바통을 이었다. 또한 올해 장학금을 기부한 오인환·국정남·권영문·이기웅·정원자·정종갑·서윤석·박용걸·백순 동문 등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장학생 선발이 늦어져 12월에 7명 동문과 동문자녀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총회 후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후 만찬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자주 못 만났던 반가운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즐거운 담소가 이어졌다. 2부 순서에는 다양한 게임

과 퀴즈, 래플 등을 통해 풍성한 선물과 상품들이 나눠졌고, 선후배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운 웃음이 만찬장을 가득 채운 마음이 훈훈한 시간이었다. 80%가 아크로폴리스 세대로 구성된 임원단들이 행사와 순서를 함께 준비, 진행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90년대와 2000대 학번 동문가족들이 예닐곱 가정 참석하여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가 두드러진 송년잔치였다.

▲ **연말파티 수상자**
한의생 - 특별기금및장학위원회위원장(2년반) 역임
박용걸, 백순 동문 등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장학생 선발이 늦어져 12월에 7명 동문과 동문자녀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총회 후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후 만찬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자주 못 만났던 반가운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즐거운 담소가 이어졌다. 2부 순서에는 다양한 게임



장학금 수여식

워싱턴 동창회 (회장 안선미)는 지난 12월 27일 7명의 학생들에게 총 7,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비엔나 우래옥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위원회 위원들은 인근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동문 5명과 대학 학부과정에 있는 동문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 달러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중인 이지현 (00, 영문)은 '쉽지않은 박사과정을 밝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5년째 동문 선배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매년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로 말했다. 함은선 (음대 77) 장학위원장은 '올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입었다'며 '장학위원회는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선미 (농대 65) 회장도 '동문 후배들과 차세대 한인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장학사업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장학위원회는 십여년 전 서울대 출신 성악가 조수미씨가 워싱턴 공연 수익금을 동창회에 기부해서 현재 4만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 장학생 명단

이지현 (00, 영문과/존스홉킨스) 홍상현 (매릴랜드) 안현정 (존스홉킨스) 이호준 (존스홉킨스) 이공 (조지타운) 이상 박사과정, 이호준 (동문자녀, 카네기 멜론) 정다연 (동문자녀, 조지타운) 이상 학부생 [기사제공: 한정민 농대 87]

샌디에고 동창회 송년회

샌디에고 지역 동창회는 지난 12월 2일 저녁 Hotel Karlan San Diego - Doubletree by Hilton에서 60여 명의 동문(가족 포함)이 모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1부 와인 리셉션 시간에는동기들, 선후배들과의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갔으며, 2부에서는 호텔에서 제공된 식사가 이어졌다. 3부 시간에는 2017년 동창회 활동 및 재정보고를 하였고, 2017년에 작고하신 동문들을 기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샌디에고 지역 5명의 동문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오페라 가수인 양나래 동문(음대 '08)이 축



가를 불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노래 부르기와 스피드퀴즈 게임을 통해 웃고 즐기며 동문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

간을 가쳤고, 추첨을 통해 고급청소기, 무선스피커, 스마트워치 등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회장단 소개가 있

었으며, 교가제창과 사진 촬영으로 송년회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연말 파티 및 임시 총회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회장 박영철)는 지난 12월 9일, 렉싱턴 소재 Avalon Auditorium at Lexington Hills 에서 2017년 연말 파티 및 임시 총회를 가졌다. 보스턴 지역과 로드아일랜드에서 총 28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보스턴 지역의 울거울 첫 눈이자 3-6 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한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사들은 오전에 일찍 모여 간단한 이사회회의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동문들은 한식으로 준비된 풍성한 점심을 먹으며 테이블마다 담소를 나누었다. 이어서 임시총회가 진행되었고, 테이블 별로 개인 소개를 마친 후, 특별 순서로 세 명의 동문들이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하였다.

김문소 동문(수의61)은 10월에 가졌던 느헤미야 러시아 선교 여행 이야기를 사진들과 함께 발표하였고, 선교 여행기획자를 박영철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장과 윤상래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장에게 증정하였다. 윤은상 동문(차기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경영66)은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외교 사절단 보빙사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보스턴 지역의 그들의 발자취와 향후 행적, 또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와 어떻게 접목되는지 잘 설명하여 주었다. 정태영 동문(문리 71)은 그리스와 이태리, 이스라엘 등 가족 여행 사진을 공유하며, 특



히 로마 폼페이, 예루살렘, 마사다, 사해(Dead Sea) 여행을 중심으로 소중한 추억을 동문들과 나누었다.



이 외에 깜짝 이벤트로, 윤상래 동문이 준비한 케익으로 12월에 생일이 있는 동문



미네소타 동창회 총회 및 송년파티 - 79명 참여, 성대하게 개최 -

미네소타 동문회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가 지난 12월 16일 (토) 오후 5시 미네소타 대학 Coffman Union President Room에서 상황리에 열렸다. 추위와 연말 시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문과 가족 79명이 참가하여 훈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년모임은 동문과 동문가족들의 정성이 깃든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차려진 저녁식사로 시작되었다. 8주전 작고하신 정종해 (물문 53) 동문 맥에서 준비해 주신 새우 요리를 먹으며 정 동문의 동문회에 대한 사랑을 되새겨 보기도 했다. 이희운 (농가정 84)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말총회는 황호숙 (사대 65)회장의 인사말과 교가제창으로 시작되었다. 각자 소개에 이어 동문들의 소식이 발표되었다. 특별히 전성균 (인대 대학원 60)동문의

2017년 서재필 의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어 미네소타주와 인연이 깊은 미주동창회 윤상래 회장님의 축하메세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하여 주었다. 동영상으로 활동 상황에 이은 2017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2018년 새 임원진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서하람-경영06, 신지은-천문학04, 이상민-경영/경제03 장학금이 수여 되었다. 총회를 마친 후 이수진 (국악 96)동문의 '국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연과 함께 선정된 곡의 가요 연주로 청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양한승 (임산공 89), 유기웅 (재료공 03)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 프로그램에서 상품권과 조형준 (문리 62), 신학철 (기계 75)동문의 후원으로 래플 추첨에 많은 경품이 증정되었다. 특별히 모두가 즐기는 Bin-



go game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박정렬 (교육 99)동문이 2017년 Bingo Champion으로 당첨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년보다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송년파티는 황호숙 (사대65)회장의 동문과 임원진에 대한 감사와 새해 인사로 끝을 맺었다. '한해 동안 동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조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임원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송년파티에 젊은 동문의 참석을 위해 수고한 유상욱 (화학교육 06) 학생간사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 양한승 (임산공 89), 사진: 변정민 (기계설계 88)

휴스턴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지난 16일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수해성금 모금 상황 설명 및 성금전달 시간이 있었습니다.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행사중에 회장의 휴스턴 동문 및 미주총동창회의 성금 모금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 유인숙 재해대책위원장(약대 76압)의 성금모금액 총액과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과 성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갖었습니다.(사진 참고)

이번 성금은 미주총동창회 지원 성금 4,800불, 휴스턴 동문성금 8,600불, 동창회 기금 1,900불 등 총 15,300불로 집계 되었으며,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분기준에 따라 수해를 당한 15명의 동문중 취약자녀가 있는 동문 7명에게는 각 1,500불씩, 취약자녀가 없는 동문 6명에게는 각 800불씩 총 15,300불이 지원되었습니



다. (15명중 2명은 수해성금을 타 피해동문에 더 지원해 달라는 의사를 보여 2명분의 지원금액은 13명에게 지원된 성금에 포함 되었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회장님과 미주 동문께 휴스턴 동문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회장 구자동 드림]



북가주 동창회 송년모임 및 총회

- 새해도 동문 모두 더욱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기원 -

지난 12월 9일(토) Palo Alto 소재 Westin Hotel에서 개최된 송년모임은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79명)로 성황리에 열리었다. 동창회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동문 선후배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즐거운 대화와 여흥을 즐긴 보람된 시간이었다. 임희례 회장 환영사에 이어 민병곤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저물어가는 2017년은 모국과 미국 모두 다사 다난 했던 한해였지만 동문들과 가정에 많은 행복과 번영이 있었던 한해였기를 바라며 새해 2018도 더욱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하였다. 다 같이 지난 해를 돌아보고 좋았던 일은 이야기하고 나눴던 일은 날려보내며 서로 도와 새해를 설계하는 하룻 저녁이었다.

1부순서에는 2017년 동창회 활동 및 재정정보고 있었는데 전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어 지난 6월 미주 총동창회에서 수여된 학술상 및 공로상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시상과

및 해동안 중단되었다가 금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아 선정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학술상으로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윤도영 동문(공대 65)에게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표창패를, 공로상으로 서울대 북가주 지부의 활동에 공로가 큰 임희례 동문(간호대 73)에게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장학위원회(위원장 박종성, 법대 53)가 선정된 임형택(자연대 02, Stanford 대학원) 동문에게 서울대 북가주 동창회 격려 장학금 \$2,000을 수여하였다 (for his contributions to developing K-beta X-ray spectroscopy and its applications as part of his fundamental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 of Chemistry) 또한 금년 북가주 동창회 운영에 크게 기여함에 특별히 준비된 감사장은 곽진경 (Mrs. 객준경, 법대 75) 명예회원, 김



벌리 김 (김현경, 치대), 최왕욱 (공대 69) 동문에게 추후 전달하기로 하였다.

2부순서에서는 참석동문 소개와 노래 및 장기자랑, 그룹댄스 등 흥겨운 여흥시간을 가졌다. 처음 참석하신 동문을 비롯 해마다 한번씩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소개시간은 2부 순서의 highlight로서 할 때마다 새로운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여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여흥시간에는 동문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쳤으며 각 분야 1,2,3등 상을 비롯, 라플 추천 등으로 거의 모든 동문들이 크건, 작건 하나씩의 상도 받았다. 하모니카 연주 및 교습을 하신 윤성희 (사대 57), 무반주 독창하신 노상규 (공대 60), 장게자랑 듀엣으로 김은용 (공대 62) 부부, 라인 댄스로 Mrs. 임준원 (공대



장학금 수여: 박종성 장학위원장, 임형택동문(자연대 02)



77), 가위바위보 게임 참여연에 등극하신 Mrs. 홍경삼 (문리 61) 등이 각 분야 1등상을 수상하시었다. 준비위원으로 이중으로 수고해 주신 임원들 (가나다 순, 존칭생략) 과 배우자들: 객준경, 박찬호, 임준원, 임희례, 전해경, 그리고 상품과 경비를 지원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로 부임하신 박찬호 총무의 전체 사회, 이장우 동문의 동문 소개 사회, Messrs.정연근/Mark Yang의 여흥 토크가 돋보였고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흥에 겨운 참여로 화기 애매한 가운데 서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모교와 모국과 함께 번영하는 활기찬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였다. (사진: 홍경삼/김준자) (글/편집: 객준경/민 병곤)

동문 문단

통일의 노래



곽상희 (문리 52)

겨울이 가면
봄 오듯이
가버린 반세기 너머

최녕쿨 역센 사랑아
그 한 줄기 찰자국은
삼천리강산 구비 구비
흐르고 흘러
동해는 하늘을 치솟아라
무궁화 진달래는 붉게 붉게
우리 가슴 피어라

백두대간 겨레의 줄기찬
걸음걸음아
초래 정 마주 서서 맞절하며
얼씨구절씨구 춤추자

태백 영봉 한라산 오름마다
언덕마다 술술 부는 봄바람
5천년 역사 최녕쿨 줄기에
피어나는 자유와 평화

울려라 두동, 동--,
두동-동 북소리 ---,
아, 통일 통일!
삼천리강산, 두동실 떠오르는
등근 동쪽 해아,
동실 동실 삼천리 강산아
은 세계에 피어라

자유와 평화 진리의 꽃

은 세상 피어나거라!

*상기의 작품은 1990년 출판된 시집 (봄도...) 속에 든 것을 개작하여 2001년 고 김동진 선생님 이 마지막 작품으로 작곡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지휘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며



박윤수 (문리 48)

눈을 뜨니 푸른 하늘
새해 햇살이 눈부시다.
차디찬 슬픔도
쓰라린 고통도 다 녹아버리고
불꽃 같은 희망이 솟아오른다.

기진맥진했던 영혼이
소생하는 새해.
관악의 혼들이여!
미래를 보려면 관악산을 보라고
자랑하는 혼들이여!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의 아픔이 사라지는
새해를 만드소서.
오늘 이 세계 속에서도
전쟁의 소리가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분열이 그치고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약동하는 새해, 새 아침
또 찾아왔구나.
흘러가는 구름에게
우리의 괴로움도 슬픔도 실어 보내고
새싹처럼 삶의 기쁨을 되찾아보자.

존재의 이유



조옥동 (사대 58)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상,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이 다르고 모양과 생각이 각각 다르다. 가는 길, 방향이 그리고 풍광이 다르고 달려 가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방향과 거리와 모양 또는 높고 낮음 등 형태가 하나도 똑같은 것은 없다. 마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모두 다른 것과 같다. 공통점은 시작 곧 출발점과 끝난, 종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길을 가는 사람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통행을 강조함은 억압이요 자유를 뺏는 일일 수 없다. 허나 우리는 타의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핑계 삼아 일방통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소통의 길은 과거로 미래로 우주로 열려 무한으로 펼쳐지는 3차원의 세상을 체험한다. 클릭만하면 나와 내 환경과 다른 세계를 만난다. 대화가 필요 없는 클릭의 외로운 시대에 살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야 한다. 현재와는 다르게 호기심과 기대가 큰 만큼 두렵기도 하다.

며칠 전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어 분해하니 하드보드가 깨져있었다. 데이터를 잃어버린 컴퓨터를 바꾸면서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이 컴퓨터의 하드보드에 해당할 가를 생각했다. 산다는 일, 알고 시작한 사람 있는가? 넘어지고 다치고 갑작스런 액운에 눈물 흘리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질기게도 살아왔다. 많은 데이터와 귀한 가족들의 사진, 심지어 연구 자료와 작품까지 미처 보존디스켓에 옮겨 저장하기 전 하드보드가 깨질 수도 있듯이 예고도 없이 앞을 가로 막고 뒤통수를 쳤다.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 온 이 세대는 모든 생활의 자동화를 온전히 익히고 패턴을 누리기도 벅찬데 얼마 후엔 시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10대 학생이 사회로 진출할 때는 65%의 직업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경고가 두렵다. 4차 산업 혁명은 모든 분야가 지능화되고 고객 맞춤 생산이 본격화되어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완전 비교용화 되는 세상을 예상하는 미래학자도 있다.

마침내 별 볼일 없는 내가 되어 별 볼일 없는 너, 이웃에게 매일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 미래를 예상한다. 나를 복사한 시로봇은 몇이나 가질 수 있을까? 나를 대신하여 나를 행세한 내 로봇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을 떨구고 있을 것인가? 진정한 그들은 내 슬픔과 기쁨을 미움과 행복을 미묘한 위양스를 정확하게 반응하고 느낌을 표현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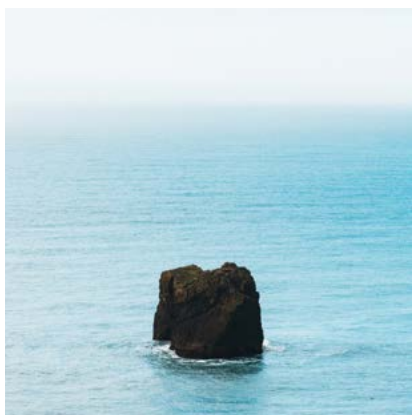


Photo by Alex Iby on Unsplash

각각의 은하계엔 수천만, 수억, 수조 개의 별이 있는 우주에서 지구는 당연히 찾을 수도 없고, 태양조차 찾을 수 없는 태양계가 점으로 표시된다. 수십억 년을 지나며 변화한 광대무변한 우주속의 작은 태양계에 속한 작고 작은 행성, 지구는 시의 분거지다. 해변의 작은 모래알 한 개에 지나지 않는 인간 하나하나가 시의 주인공이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만하면 인간은 평등한 지능을 소유할 수 있겠다. 서로 달라서 '다른 세상', 아름다운 세

상이 사라질 염려를 해 봄은 지나친 기우이길 바란다. 분명히 사실은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 결국 사람으로 죽고 개미는 살다 개미로 죽는다. 사람이 풀이나 짐승이 될 수 없다. 모든 만물은 고유한 생명체로서 각각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마침내 제 모습으로 죽은 후 썩어 흙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

직장의 젊은 한 동료가 40대와 50대는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해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는 자신의 생각과 자존의 변화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내 나이 70대를 살고 있으니 연장자에게 참고가 될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자존심은 남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며 오만을 떠는 자만심과는 다르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켜 인격을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다. 체념하고 나약하게 보내지 않을 때, 비록 염장은 되었지만 애초의 등푸름이 살아 있는 자반고등어 같이 자존의 이유를 새기며 순응할 때, 머플러의 끝자락만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목에 두르며 기왕이면 그것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올 해도 내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간다. 조용히 떠 있는 나의 섬으로 간다.

시집: <여름에 온 가을엽서>, <내 삶의 절정을 만지고 싶다>
수필집: <부부>(공저)
• UCLA 의과대학 Research Staff
• 재미시인협회 회장

남가주 공대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지난 12월 8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한효동, 공대 58) 주최로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 행사가 있었다. 이 날 공대 동문들과 친지, 그리고 외부 초청 인사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위중민(공대 64) 총무의 사회로 1부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교가와 공대 학가를 제창하였는데, 서지원(전 총동창회장, 공대 69) 동문이 선창하였다. 다음은 고 이재경(공대 57) 동문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었고, 한효동 회장의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있기 까지 수고하신 여러 동문들과 후원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조정식(공대 60) 부회장의 사업보고와 차기민(공대 85) 재무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다음 한효동 회장이 관공원(공대 69) 전 동창회장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공대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 간의 친목도모에 헌신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뜻에서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에게, 음대 동문으로서 지난 12년 동안 공대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함을 치하하는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신임회장은 한효동 현 회장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



관공원 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홍선례 (음대 70) 문화위원장에게 감사패 증정



한효동 회장의 인사말

며 따라서 모든 임원들도 자동 연임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효동 신임 회장은, "저희 공대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1968년에 정형조(공대 초대회장, 공대 45) 동문을 비롯하여 김동명(공대 53), 최순달(공대 50), 홍용식(공대 52), 김병삼(공대 52), 김병준(공대 51), 박경식(공대 53), 장준철(공대 56), 김영기(공대 52), 장동호(공대 53), 박병기(공대 54), 한효동 동문 등이 모여 공대 동창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오는 2018년은 공대 동창회가 창립된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당시 창립멤버로서 유일하게 LA에 남아있는 제가, 공대 새 주소록과 공대 남가주 동창회 5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출연한 숙대합창단의 "꽃구름 속에, 캐롤송 메들리" 합창은 장내를 가득 메우며 벽에 걸린 화가들의 추상화 그림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였다. 다음 단체사진 촬영과 저녁 식사 후 2부는 박영호(공대 65) 동문의 "화성 탐사"

강연으로 이어졌다. 3부 여흥 시간에는 최경홍(공대 60) 동문이 이끄는 Line Dance가 있었는데, 30여명의 동문들이 앞으로 나와 흥겹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경품 추첨에서는 성주경 총동창회장이 1등상 (한국왕복 비행기표)에 당첨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 했다. 다음 노래 자랑 시간에는 모두 앞을 닦아 기량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음대 동창회 송년모임 및 총회

지난 12월 12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 최명용, 음대 64)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음대 동문과 친지, 그리고 초대 손님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명용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교가제창이 있었고, 최명용 회장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2017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기연주회 때 수고한 동문들과, 지금까지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초대 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서울대 음대 남가주 동창회 연주회는 일반 음악 전문인의 연주회 중에서도 톱 클래스의 클래식 연주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리고 또 전도가 양양한 후배들이 우리 서울대를 빛내주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음대 동문들의 전문성을 극찬하였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로 이어졌다. 성주경 총동창회장,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 김상찬(문리대 65) 전 총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전 총동창회장,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 등의 동문들이 초대손님으로 참석하

였다. 이어 김미자 (음대 81) 총무의 사업보고와 송란(음대 81) 회계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다음 신임회장 추첨 및 인준이 있었는데, 서정화(음대 80) 동문이 2018년도 회장으로 결정되었고, 신임회장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역대 회장님들의 뜻을 본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의대 63) 전 총동창회장이 전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수성자는 조가현(음대 02, 바이올린), 제갈소랑(음대 02, 피아노), 김여경(음대 11, 바이올린), 안소연(음대 10, 피아노) 등이다. 김영 회장은 1년에 1~2번 해마다 자택에서 홈콘서트를 열어 음대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어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의



새 회장에 선출된 서정화 동문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저녁식사 시간에는 최명용 회장이 손수 초대 손님들에게 와인을 권하며 건배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재즈콘서트로 이어졌다. 밴드에는 이호(음대 90) 동문과 친구들인 Amanda Keenan, Till Hall 등이 "Girl from Ipanema, Autumn Leaves"등을 연주하였다. 음색이 고운 소프라노와 기타 반주의 은은하고 감미로운 팝 멜로디는 파티장을 가득 채워 어느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을 방불케 하였다. 다음 김미자 동문의 사회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동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푸짐한 상품을 한 아름씩 안고 즐거워 하며, 새해 복을 서로 빌어 주며 헤어졌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송순영(宋舜英) (문리대 52) 동문 미주 총동창회 제10대 회장, 별세

선구적인 전문여성인의 지혜로써 동창회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한인 여성회와 지역사회 봉사기관에 나눈 83년의 삶.



송순영 동문이 숙환으로 투병 중에 시카고에서 83세의 일기로 (1934년 1월 27일-2017년 12월 17일 오후 2시) 별세하였다.

송 동문은 1992년 제11대 시카고 동창회장과 미주주총동창회 제6대 관악부회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미주동창회장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으로 봉직하며 임원들과 함께 일하며 동문들의 성심을 모아서 2년 임기후, 차기 집행부에 3만 불의 잉여금을 이관하여 미주동창회의 흑자 재정 운영의 시범을 보였다.

또한 송 동문은 60년간의 삶의 동반자인 부군 안경진 박사(MD)와 함께 미주 한인 의사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과 한인여성회의 후원자로 나눔의 삶을 살았다.

송 동문은 부친 송택송 님과 자당 장혜자 님의 6자녀 중 차녀로 태어났고, 서울진영 여자 중등학교와 모교 정치학과를 6개월 조기 졸업하고 1995년 도미하여 Skidmore 대학(NY)에서 정치학 학사, NYU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역사학의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Edwin Reischauer 교수(Harvard)의 근대 중국 정치사에 관한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Calumet Community College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송 동문은 30여년간 미국의 투자금융기관

(Burnham, Smith Barney와 Morgan Stanley)에서 여성 투자 전문인으로 일하고, "선임 부사장"의 일원으로서 은퇴하였다.

고인의 장례식은 2017년 12월 19일(화) 8시에 Colonial Funeral House (8025 W. Golf Rd. Niles, IL)에서 시카고 동창회의 한경진 회장(상대 59), 전임회장단, 동문들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의 이롭고 나눔의 삶을 추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본인의 유지에 따라 간소한 가족장을 한 후에 가족들이,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한 추모 만찬이 12월 23일(토) 정오에 The Glen Club(2901 West Lake, Glenview)에서 있었다.

이용락 동문(공대 48, 미주동창회 6대회장)과 여러 참석자들이 고인의 밝은 미소와 여성 전문인으로서의 선구적 삶과 나눔의 삶을 돌아보는 조사 (첨부 이용락 조사 참조)와 회고담을 나누었다.

부고와 나가지 마자, 미주총동창회의 4대 및 5대 회장을 역임한 오인석 동문(법대 58)은 유가족에게 조문 서한을 보내 부군 안경진 박사와 자녀 (Maureen, Jennifer와 James)와 손자 (Gregory, Douglas and Christoph)를 위로하였고, 시카고 문리대 동창회의 최희수(문리대 67, 만년 총무 및 회장 10년 역임)동문의 가슴시린 선배의 배려와 존경이 절절한 "내 누님같은 선배님을 멀리 보내며"라는 조사를 유가족에게 전달하였다.

시카고 동창회의 독서 클럽 모임에서 송 동문이 존경하던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태두이던 은사의 지금은 절필된 저서인 국제정치원론(서울: 장왕사, 1955년, 초판 400면)을 물려 받은 한 후배는 "발견된 보물, 잃어버린 보물"이라는 고인과 부군의 사랑을 기리는 객담으로써 오랜 간병에도 "처음처럼" 의연하던, 미수를 지난 부군 안경진 박사가 아련한 사랑의 추억과 상배의 아픔을 친구들과 나누게 하였다.

(투고자 김정수, 문리대 69)



이용락 (공대 48)

동문 선배님들, 고인과 오랜 우정을 나누던 친구님들, 오늘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지혜로써 시카고지역 한인 여성 전문인으로 선구적인 길을 걸어왔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부군 안경진 박님과 자녀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이룬 주부이며 어머니이던, 송순영 동문을 갑자기 떠나 보낸 아픔을 나누며, 고인의 선구적이며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합니다.

송 동문이, 밝은 미소의 出衆한 숙녀와 중후한 신사 안경진 박스님 부부를 처음 만난 것은 1967년 경이며, 당시에 본인 이 Urbana-Champaign에 있는 University of Illinois의 기계공학과 대학원 학생으로 수학 중에 있던 때였으며, 그 당시 한국 학생은 대학원 학생이 50여 명이나 되었으나, 4만여 명의 학생 중, 학부학생으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송순영 동문의 남동생 송덕영 학생을 만나러 Campus를 찾아온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학 선배인 것을 몰랐습니다. 어언 시카고 한인 사회와 동창회를 통하여 송 동문 부부와 교류한 반세기의 기억들이, 본인의 머리 속에 走馬燈처럼 떠오릅니다.

송순영 동문은, 동족상쟁의 비극인 6.25 동란의 와중인, 1952년, 신생 대한민국의 구국의 경륜을 다듬기 위하여 서울대 정치학도로 입학하여 우수하게 학부과정을 마치고, 신천지에서 꿈을 키우고 면학하여 한인 사회에 여성 전문인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우수한 투자금융회사의 선임 부사장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성공적인 삶의 걸음을 축하하면서, 그간 본인이 본 몇가지들 조문객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군 안경진 박스님과 함께, 한인 동포사회의 여러 봉사기관을 위하여, 들어나지 않은 후원자로서 성심을 다하여 본인들이 이룬 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둘째, 시카고와 전미주의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으로서 봉사하며, 우리 동창회가, 통상적인 친교모임의 수준을 넘어서서, 동포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데에, 그의 전문인의 지혜와 지도력을 퍼왔습니. 1992년도에는 5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회장으로서 훌륭히 보직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7500명의 등록회원을 가진 미주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 사

조직의 청사진을 다듬는 정관개정 작업에 본인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인과 함께 2001년 7월에서 2003년 6월까지의 2년간, 제6대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의 관악 부회장으로 매달 발간되는 동창회보를 발간하는데 요하는 재원을 확보함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제10대 서울대 미주총동회 회장으로,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문 선배님의 모임의 발전에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적자운영의 어려움이 따르는 동창회를 2년간 3만 불이라는 흑자를 낸 것은, 실제로 참여하여 일한 임원들이 이끈 그의 지도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11명의 동문 학자를 한 자리에 모아,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고찰"이란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LA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지성인의 동창회"의 "두뇌연대"(Brain Network)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이는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창들에게 부고를 내며, 한경진 동창 회장께서 말씀하신 "투병중인 몸인데도 11명의 장학생을, 친지들에게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출연에 참여시킨 'MVP'라는 애도는 그의 삶의 모습의 일 단입니다. 힘든 오랜 투병 중에도 항상 밝은 미소로 선배배와 친구들과 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그의 대학동기인 김옥영 씨가 그의 오빠이며, 나의 친구인 김동수 박사의 생일에 제하여, Lake Point Tower 오빠 자택에서 후수가 부근의, 송순영 동문이 살고 있는 Nieman Marcus 건물을 보면서, 투병 중인 송 동문과의 아름다운 옛 추억들을 되새기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친구선배 몇 가정을 초대한 오찬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즐겁게 담소한 것이 바로 언그제 같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송순영 동문의 미소가 지혜로써 이웃을 위하여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다지도 빨리 불러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힘든 투병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랑의 부부애를 구현하신 부군 안경진 박스님과 자녀 유가족 친구들로서, 이제 고통없는 평화로운 안식의 삶의 세계로 송순영 동문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고인을 보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조객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017년 12월 23일, 이용락 군조



박평일 (농대 69)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1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매년 연말마다 갖는 동네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 동네는 모두 33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동네다. 그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들 가정이 30가구이다. 18년 전 내가 이사를 올 때만 해도 동양인 가족은 우리밖에 없었다.

그 후 10여 년 전에 인도계 변호사 가정 이 이사 왔고, 5년 전쯤에 중국계 대학교 수 부부가 이사 왔다. 동네 거주 기간이 나 미국 땅에서 산 경험, 나이로 보아서 나는 나에 고참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백인 이웃들 눈에 비친 나는 항상 외국에서 굴러들어온 이민자다. 우연히 마주길 때면 습관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국적을 묻곤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째 모임에 불참해 오다가 동네 모임 서기직을 맡은 친구 Jon의 수차례 요청으로 올해 모임에 참석을 결정했다. Jon은 미 중북부 미네소타주 태생으로 연방정부에서 평생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다. 나이도 나보다 5살 위이고, 우리 동네에 산 기간도 5년 정도 고참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즐기며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15년 동안 집을 물색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자기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런 탓으로 우리 동네에 대해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여름 날 오후였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 부을 듯한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평상시 산책차림으로 산책 길에 올랐다. 15분쯤 동네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지척을 분간키 어려운 장대비가 퍼부어 내리기 시작했다. 곧 끝날 것 같지 않는 억센 기세였다. 길가 큰 느티나무 밑에 젖은 몸을 피했다. 마침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Jon이 나의 처량한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시장에 가고 있는데 집까지 차로 데려다줄게.”라며 차에서 내려서 차 뒷문을 열었다.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어런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비를 실컷 맞아보고 싶어. 지나가는 폭우라서 잠시 후에 뭏겠지.”하고 정중히 사양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지... Good luck!”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우뉠거리며 차를 몰았다.

그래도 내 괴락서니가 영 마음에 걸렸던지 몇 분 후에 다시 와서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우산 하나를 내 손에 건네고 갔다. 차를 되돌려 자기 집에 들렀다가 온 듯했다.

우리 동네의 특이한 점은 젊은 층들보다 노년층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다. 그 이유는 대충 이러하다. 동네가 위치한 Clifton City 지역에 Occoquan River가 흐르고 있다.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울창한 숲에 생수를 공급해 주는 생명의 젖줄이다. 그 강의 수질을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 동네 주변을 자연보호



The Trail Of Tears by Granger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이 최소 5에이커로

제한되어 있고, 상수도도 하수도 연결도 불가능하다. 그런 탓으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 건축허가 조건 때문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숲으로 뒤덮여 있어서 길이 좁고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크리프톤 다운타운의 경우 대부분 건물이 미국 남북전쟁을 전후로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역사적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건물은 물론 증개축마저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버지니아 지역의 최초 실내 화장실 건물과 최초의 노예들 전용 교회도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자런 이유로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동네를 주거지로 선택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이사를 오면 질병이 나거나 늙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주지않아 사는 경

우가 많다.

회의 시작 시각인 저녁 7시 30분에 도착하니 이미 13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의 참석을 예상치 못한 듯, 약간 놀란 눈으로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익은 몇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때마침 앞에서 회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던 Jon이 하던 말을 멈추고, “Bill, 참석해 주어서 고마워! 오늘 네가 좋아하는 자연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어. 너도 좋아할 거야”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참석자들 자리를 일일이 돌아가며 악수를 청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다. 굳이 장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이고, 세상이고, 이웃이고 내가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특별 연사로 Ms. Margaret Fisher가 초청되었다. 주제는 ‘Invasive Plants with us’였다. 그녀는 Occoquan River 주위의 생태계를 보호, 보존하기 위한 자원 봉사

그녀의 강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이 지역 토종 식물들은 이지역 토양과 기후와 궁합이 맞아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따로 물이나 비료를 줄 필요가 없고 병해충에 강해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타재가 다른 식물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울러 천연물과 토양을 보호, 유지해 주며 곤충들이나, 벌, 나비, 벌레, 새들이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줍니다.

외국에서 침략한 식물들 때문에 토종 식물들 뿐 아니라 그 식물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토종 새들, 곤충들, 개구리, 벌레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침략한 식물들을 뿌리째 뽑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토종 식물들로 대체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Japanese barber-y 가지들을 들고나와 그 침략자 식물의 예로 들었다. 다소 이해가 가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나의 평소 견해와는 사뭇 달랐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나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토종 식물들을 보호하는 운동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문제는 지구 전체의 생태계 변화와 파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지역적인 문제를 들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구 생태계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와 소비 위주의 자본주의 경제 문명에서 비롯된 공해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Occoquan River 강변 숲길을 산책하면서 매년 눈에 띄게 숲의 생태계가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미 대륙의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지역 토종식물들은 점점 죽어가고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심지어는 Georgia 주 식물들까지 북상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테네시주에 위치한 The Smokey Mountain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지역과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에는 대충 100여 종류의 토종 나무들, 150여 종류의 꽃들, 240여 종류의 새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난화 현상으로 남부 주들 식물들이 북상해서 토종들의 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풀라 곰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겠지요.”

그녀는 “남부 주들 식물들은 이 지역 식물들과 유사한 종류의 미국 식물들입니다.” 하며 서둘러 대답을 마쳤다. 맞는



이원영 (인문 81)

[진맥 세상]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먹자, 먹자, 온통 먹자판이다. 한국 TV방송은 채널만 돌리면 소위 ‘먹방’이다. 고상한 산천기행 프로그램, 산속에서 혼자 사는 애잔한 스토리나 결국은 먹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카메라 앵글은 스크린 속 맛을 화면 밖으로 살려내는 요술을 부려 침샘을 자극한다.

맛을 장려하는 ‘공약’ 방송에 격려 받은 이들은 곳곳의 맛집을 탐색한다. 요리에 취미 없던 남자들까지 주방으로 불려낸다. 가히 전 국민이 맛의 달인이고, 요리사가 되어가는 시절이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헷갈린다.

캘리포니아 솔크 연구소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람들의 하루 일상을 분석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

고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절반 정도는 잠 자기 전 2시간 내에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본인이 잘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즐기게 ‘먹어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간제한 다이어트’인데 먹는 시간대를 하루 10~12시간(예를 들어 아침 8시~저녁 8시)으로 줄이기로 해도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자고로 한의학에선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 했다. 음식과 약의 근원은 같다는 것이다. 잘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 병을 부른다는 의미다.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의 눈에는 인디언들이 Relocation이라는 단어 대신 Remov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동식물들같이 하찮은 존재들로 보였을 것이다.

Invasive plants들을 Removal 하고 미국 토종식물들을 심으라는 강의를 듣고, 왜 갑자기 The Indian Removal Act가 내 머릿속을 스쳐 가고 가슴 속에 이유 없는 서글픔이 파도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이 바로 ‘당산’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표정·피부·성격·수명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먹는다는 행위, 과연 우리는 생각이나 좀 하면서 먹는 것일까. 입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몸에 좋은 것일까.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외부의 물질은 크게 두 가지다. 음식과 공기다. 공기는 산소로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음식은 나를 살리기도 병들게도 하는 것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식을 조절·통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먹으면 몸이 알아서 다 소화시켜주고 흡수하고 배설해주는 것 아닌가.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먹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불필요하고 나쁜 것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몸은 엄청난 사투를 벌여야 한다. 먹은 것을 체로 거르듯 스스로하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대량생산된 채소·육류에 스며든 농약·항생제·성장촉진제, 각종 제조식품의 식품첨가물, 온갖 종류의 약,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흡수 과정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면역체계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 매일 그런 게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래서 음식은 만병의 원인이고, 만병의 치료제다.

먹는 것의 중요함이 이러할진대 실상은 어떤가. 입맛 당기는 대로 먹는다. 가공된 맛에 ‘중독’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을 해치는 정도만 다를 뿐. 술·담배·마약이 당긴다고 흡입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하나 더. 적어도 먹는 것은 썩 것만 찾지 말자. 비교적 비싼 값의 유기농 식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홀푸드마켓이나 트레이더 조에서 꼼꼼하게 식품을 살펴보고 구입하는 백인들이 많다. 한인 마켓에선 유기농 채소 코너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시들시들한 장면이 대조적이다.

다른 데서 아껴서 먹는 것은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먹는 것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자.

미주 중앙일보 논설실장한의학 박사

SNUAA Brain Network Workshop

4차 산업의 미래

2018년 3월 31일 (토)

MIT Stata Center,
Cambridge, MA



1. 주제: 4차 산업의 미래

지난 30-40년을 IT 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다고 보면, 앞으로 30-4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T 산업 초기에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산업화했는지 되돌아 보며, 미래의 새로운 사업인 Nonotechnology, AI, biotechnology의 기술적인 면 뿐만아니라 앞으로 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workshop을 가집니다.

2. 프로그램

10:00 - 11:00	강기동: 반도체 기술의 산업화 경험
11:00 - 12:10	임재수: IT
12:10 - 1:00	Lunch break
1:00 - 2:10	김경석: Nano technology
2:20 - 3:30	이주훈: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3:40 - 4:50	고종성: Biotechnology

3. 연사

▲ 강기동

새로운 반도체 기술인 CMOS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을 한국에 들여와 현재의 삼성의 모태 역할을 했다. 새 반도체 기술을 상품화, 기업화하는 과정과 그 당시의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되돌아 본다.

▲ 임재수

MIT 전기과 교수이며 signal processing과 voice compression에 많은 기여를 했다.

▲ 김경석

Brown 대학교 재료공학 교수로 최첨단 Nano Technology를 연구하고 있다.

▲ 이주훈

삼성을 거쳐 현재 Nvidia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자율 자동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 고종성

신약 개발 회사 Genesco의 사장이며, 보스턴 biotechnology를 이끌어 가는 한인 중의 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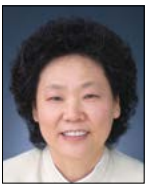
앨라스카 동창회



윤재중 (농대 55)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진력하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문님들 내내 건강을 하시고 가내 평안과 만복을 빕니다.

북가주 동창회



임희연 (간호 73)

동문 여러분 무술년 새해

에도 북 많이 받으세요. 올해 동문회를 위해 수고 많으신 민병곤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선후배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각 가정에서 항상 따뜻한 사랑이 넘치기를 앙망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성주경 (상대 68)

길고도 짧은 1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갑니다. 미주 지역 동창회에서 가장 큰 남가주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지난 1년의 공과

를 돌아보면서, 잘된 것은 더욱 키우고 미진한 것은 개선함으로 더욱 융성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전, 현, 차라는 3명의 회장이 의기투합하여 현 회장을 중심으로 끈고 밀며 협력하는 최고의 남가주 총동창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진짜 70, 80의 위력을 보여주는 남가주 총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강신용 (사대 73)

황금 개띠해가 왔다. 1975년 관악캠퍼스 첫 해 가을은 황금색 들판과 은행잎으로 가득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캠퍼스는 지난 30여년 미국 생활에 대들보처럼 마음 속을 지나가네 지키고 있었다. 2018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일을 손에 손잡고 앞장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은 많은 부분 서울대인들의 피땀어린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조국에서도 그렇듯이 수 많

은 미주 동문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반듯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SNU 동문 후손들은 미국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곳곳에서 훌륭하게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미래 동포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리더할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문회는 개개인 이 이룩한 사회 활동과 한인사회 봉사, 원로잔치, 대표적 여러 문화활동을 통해 밝은 동포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포회 발전을 위해 동문, 동문가족, 그리고 이민 사회의 보석같은 인재들과 재화를 Network하여 앞장서서 동포사회를 리더하는 최적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2018년 동문들과 아이디어나 조언, 해결책을 의사소통하겠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창의적 해결 방법을 찾아 동문 한분이 소속감을 느끼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포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위해 SNU동문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약문화(RSVP)를 통해 서울대 동문회는 개개인 이 이룩한 사회 활동과 한인사회 봉사, 원로잔치, 대표적 여러 문화활동을 통해 밝은 동포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포회 발전을 위해 동문, 동문가족, 그리고 이민 사회의 보석같은 인재들과 재화를 Network하여 앞장서서 동포사회를 리더하는 최적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샌디에고 동창회



이제봉 (인문 88)

미국 땅 바쁜 생활중에도 동문회의 좋은 선후배들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동문회를 통해 소중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서 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국 땅 바쁜 생활중에도 동문회의 좋은 선후배들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동문회를 통해 소중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서 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카고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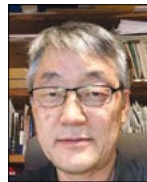


홍혜연 (사대 72)

새해에는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의 모든 일이 술술 (

茂戌年) 잘 풀리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는 미주동창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발전의 초석이 될 "서울대 동창회관" (SNU-HOUSE) 건립 추진의 원년이 되어 많은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전미 각지의 "오뉴월"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따뜻한 모임이 되고, 나아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하이오 동창회



이성우 (상대 72)

동문들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 가정에서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간 한해에 보여주신 친분과 도움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또한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박영철 (농대 64)

삶의 만족도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서울대 동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피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같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 동문님들은 자기 가 하기를 원한 분야에서 professional로서 많은 것을 성취하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professional로서 오는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social interaction에서 오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주 동문들이 caucasian dominated cultural society 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 주류 사회에 참석하여 social interaction을 가질려고 노력

하는 여러분을 보았고, 대부분이 미주류 사회에서 outsider 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에게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총동창회 및 지역 동창회에 active 하게 참석하셔서 social interaction 에서 오는 만족도를 증가시키십시오. 새로운 activity group (i.e. hiking, travel, medical advisory, health, history, politics, local small group, ...)을 만들어 참여하여도 좋습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커네티컷 동창회



유시영 (문리 68)

먼저 커네티컷 동문들의 안녕과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여러가지 일에 참여하여 신년에는 결실을 맺는 해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 지

부로 등록을 마치고 준비작업을 75% 했고, Overseas Mission Study Center 에 trustee로 참여 하게 되었으며, 10월에는 터키를 방문해 난민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단체를 방문하고 난민들의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하시는 사역이 아마도 모슬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역까지 4개의 fund raising을 부담하고 잘 조율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커네티컷 동문들의 보람 있는 모임을 위해 동문들의 조언과 협조를 구합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박혜란 (음대 84)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문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니다. 새해에 좋은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욱 행복하세요! 필라델피아에서는 12월 초에 연말파티 및 비전공 동문음악회를 매우 즐겁고 정겹게, 또 멋지게 가졌었습니다. 올해 미주동창회 모임에서 밝게 되기를 기대하며,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미주동창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



이대영 (문리 64)

지나간 2017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뉴욕지역 동창회는 임원, 단과대 회장단, 그리고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이사회/총회, 추계골프대회, 그리고 송년의 밤 등 큰 행사들을 모두 성황리에 잘 치루어서 2017년의 좋은 추억으로 남겠다는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잘 못치지 못하는 것이 서울대출신들의 특징인 것 처럼 혹평하는 사람들에게 보람듯이 과시하고도 남을 기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 동창회가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일을 시작한 것은 세인의 관심을 받았습니. 역시 서울대학교는 다른 다른 칭송을 받기에 송구할 만큼 미약하게 시작을 하였는데, 앞으로 더 진척이 이뤄져서 모교의 명예와 동문들에게 금지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2018년에도 여러 동문님들 여전히 건강하시고, 내내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워싱턴 DC 동창회



안선미 (농대 65)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새해의 바람 중 하나는 우리 동창회를 통하여 동문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의 고령화와 추세와 함께 저희 동

창회 참여 멤버들의 고령화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배들과 후배들의 삶의 가치와 생각의 기준이 다른 우리 동창회에서도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워싱턴 지역 동창회는 선배님들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이해의 창으로 후배님들의 거리감 없는 마음과 가족같은 푸근함을 느껴지게 해주신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새해엔 우리 모두 서울대인의 지성과, 한국인의 정서와, 미국시민으로서의 자아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나누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지아 동창회



김중구 (수의 73)

2017년에는 조지아 지부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던 이유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그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는 날마다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지난해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해라는 선물 꾸러미를 열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 있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기대하며, 2018년에도 서울대 미주 동창회원, 조지아 지부 회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화합하고 도약해서 나누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플로리다 동창회



조동권 (공대 69)

일년 항상 따뜻하고 바다가 아름다운 Florida에서 미주 서울대동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찾아오는 2018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나이를 떠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 제목처럼) 동문들이 자주 만나는 아름다운 교재의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많지않은 Florida에 더 많은 동문들이 방문하고 이주하는 2018년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스턴 동창회



구자동 (상대 70)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회장님과 미주 동문회 휴스턴 동문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않고 여러 모임에 참여해 주신 선후배 동문님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트랜드 동창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해 온 것처럼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수여, 춘계 친선 골프 모임 및 임원/이사회 모임(4월 말경), 9월 15일의 정기 동창회, 그리고 12월 초에는 송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동문님들 가정의 경조사에도 동문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동문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트랜드 동창회



오명순 (가정 69)

하트랜드에 거주하시는 선, 후배 동문님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작년 9월 하트랜드 동창회 20차 정기 모임에서 11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오명순(가 69)입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여러분에게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창회는 6개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도 마다 하지



Ode to Black Widow Spider (‘검은 미망인’ 독거미 찬가)

이태상 (문리 55)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매년 말 선정하는 2017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성희롱·추행·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선정됐다.

최근 (2017년 12월 1일자) 수필가 고명선 씨의 한국일보 커네티컷 칼럼 ‘커튼콜로 유발된 서울의 24세 소녀’(서울대 재학생)와의 이메일 대화 일부를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어 옮겨본다.

친애하는 선생님,

보내주신 칼럼을 읽으니 요즘 부쩍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xx야. 엄마는 2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가 되었어. 결혼을 했지만 찾아갈 친정집도 없단다. 엄마는 기뻐 엄마가 없었어. 하지만 너와 xx에게는 엄마가 있잖니. 정말 너희는 행복한거야. 엄마는 못그랬으니까. 그러니 부디 속 좀 썩이지 말아주렴.’

항상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나이 비슷할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모든 슬픔을 꼭꼭 눌러왔다는 것을..

술을 격하게 많이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집안 가구가 부서지고 전화기도 매번 바뀌어졌고 방 문고리가 부서지기가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미울 뿐, 엄마의 슬픔은 생각치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생 때 어머니는 가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얼른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제가 아빠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미워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아빠의 모습들을. 하지만 아빠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미워도 그러려니 넘길 뿐입니다..

내가 독립하면 엄마는 더더욱이 외로워질텐데, 그 잔인한 외로움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니 큰 딸의 행복을 우선 배려주셨습니다..어릴적 제 억울함과 울음을 들 어주고 토닥여주던 엄마의 모습은 점점 작아만집니다..하루만 전화를 안받아도 엄마는 위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받으면 엄마가 스트레스때문에 위가 아프다고.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꾸준히 위가 안좋으십니다. 저 또한 엄마 유전으로 위가 안좋습니다. 제 나이 불과 22살 때도 전 그냥 확인했을 정도니까요. ‘난 위암으

로 가겠구나.’ 너무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당연히 여기는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의 입장과 퇴장의 커튼콜을 수백번 맞이해야할텐데, 지금 가끔의 커튼콜에 그저 획 지나가는 제가 참 머지 리갑습니다.

인생은 비빔밥, 사랑, 미움, 슬픔, 기쁨, 좌절, 통쾌, 희망, 안정, 나락. 어떤 나물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나물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도 어떻게 비벼야 맛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섣뎨 잘못 비볌다가는 다시 뱀어비릴까봐도 두렵습니다. 아직은 다른 이들이 맛있게 비빈 비빔밥을 옆에서 얻어먹어보며 알아가야겠습니다..

감xx 드림.

친애하는 xx님,

“내가 독립하면 엄마는 더더욱이 외로워질텐데, 그 잔인한 외로움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니 큰 딸의 행복을 우선 배려주셨습니다.”

xx님 어머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면 꼭 껴안고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그 모진 세월 남편의 심한 ‘술주정’을 감내하며 살아오셨다니, 나도 분통이 터지다가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잘못된 술버릇과 남성의 야만성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몸과 마음이 그토록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당해보시더니!!

“하지만 아빠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미워도 그러려니 넘길 뿐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사랑’이 크기는 커녕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아니 ‘사랑’의 정반대로 결코 ‘그러려니’ 넘길 일이 아니고, 일찌거니 못된 ‘버릇’을 고쳐놓거나 그제 안되면 애시당초 ‘인연’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더 훨씬 좋은 진짜 ‘천연’을 찾아봐야 할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르면 빠른수록 더 좋은 일이지요. Better Late Than Never이고 Sooner The Better이며 ‘아니다’ 싶으면 한시 빨리 단념포기해 Cut The Loss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나 역시 Learn the hard way 했으니까요. 아니면 아니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더군요.

‘그러려니’ 넘김으로서 그 못된 버릇 키워준 것일 테니까요. 요즘 미국에선 그런 남성의 가정폭력은 절대로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추방격리되고 (집근금지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때는 형무소행이지요. 참으로 강하고 큰 사람은 그의 위대함을 약자를 ‘괴롭힘’이 아닌 극진

히 ‘위험’을 통해 나타내는 법이 아니던가요?! 약자를 짓밟고 못살게 구는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하며 못나빠진 ‘인간이하의’ ‘인간말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다른 이들이 맛있게 비빈 비빔밥을 옆에서 얻어먹어보며 알아가야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그렇지요. ‘인생은 비빔밥’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만 취사선택은 각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독초는 제거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만 골라 비벼먹어야지요!

그것도 ‘다른 이들이 맛있게 비빈 비빔밥’을 옆에서 얻어먹어보며 알아가야겠습니다’는 너무도 xx님 답지 않은 xx님과는 너무도 반대되는 표현을 하시네요. 정말 뜻밖이랍니다. 하 ― 하 ―

태상 드림

친애하는 선생님,

그러게 말입니다. 현대 그것도 어머니의 선택이니 제 할말이 없답니다..

친애하는 xx님,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평생의 생업으로 생각해 생활을 남성에게 의존하다보니 독립적인 생활력을 기우지 못하고 ‘죽으나 사나 올버 겨자 (아니 사약/독약) 먹기로’ 결혼제도의 ‘노예’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온 가정들을 보더라도 여성분들의 생활력이 남성들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다 강한 반면 많은 남성들이 무능한 편이지요. 여성은 남성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 없인 못사는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아가씨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You are not marrying a man. You are going to adopt a child, forever the youngest and the most problematic one. So love him or leave him. Ha ― Ha ―

그러니 여성을 여왕 아니 여신처럼 모시지 않는 남성이라면 그런 야수 같은 남성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하고 그런 ‘짐승’인 줄 모르고 맺었다 하더라도 하루 빨리 끊어버려야 할 일이라는 생각과 소신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말이지요. Single-parent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불화가 애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고 하지 않던가요?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지만 본래 남남이던 남녀간에는 헤어지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갈 뿐이지요. 비록 생물적으로 부모자식간이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이라면 남만도 못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감xx 드림.

그건 그렇고, ‘비빔밥’ 이야기로 돌아가서 각자는 각자 대로 취사선택해서 비빔밥을 비벼먹다 보면 자신만의 ‘식성’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You are what you eat.’이란 말대로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똥을 먹으면 똥이 되고 별을 먹으면 별, 그것도 큰 별을 먹으면 큰 별이 되겠지요. 하 ― 하 ―

어떻든 사랑하는 나의 xx님께서는 큰 별이 되기 위해 ‘성장통’을 아주 크게 앓고 계신겁니다.

Bravo! Cheers!! Fighting!!!

태상 드림

친애하는 선생님,

20년대 기생, 화중선이 누구인가 궁금하여 열심히 찾아보고 격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적어내려 갑니다.

".....그래 현 제도가 어떠하냐? 고찰하건대 온갖 사회는 죄다 특수계급의 지배아래서 자연치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구속일 뿐이외다. 이렇듯이 자유가 없으니 따라서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니 따라서 권리가 빈약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부한 자유, 완전한 인권을 찾아야할 전적 살림, 곧 본연의 충동인 살림을 살림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 사회의 온갖 제약을 부인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이까.....

암만해도 현대의 살림살이 형식에 많아 아얌 창조 향락은 적고, 적어야 할 소유적 충동이 주되는 이 제도 아래서는 황금만능주의에 형이상의 모든 예술, 문학, 종교까지 정복되어, 학자나 목사나 국무경이나 선생님이나 나나 모두 화폐가치의 계량의 대조물이 되어, 그의 이마에 얼마간다는 정찰의 각인이 찍혀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제가 賣笑함은 아니 賣肉함은, 남성들과 같이 완력이 없는 약질로, 저 유산계급들이 저희의 향락적 충동과 소유적 충동을 만족케하자고 우리 여성을 자동차나 술이나 안주나 집과 같이 취급하는 그 아니 괴운 수작을 받기 싫은 나로서 차라리 역습적 행위로 소유적 충동과 추악한 향락적 만족에 광취한 그 사람들, 그 사회들로 하여금 저희들 소유적 충동의, 또 향락적 충동의 발사작용에 저서 절로 건디지 못하여 나의 '신코'에 입을 맞추고 나의 '발바닥'을 핥아가면서 자진하여 나와 나의 포로물이 되게 하여가지고 나의 성적 충동을 발현하는 어떤 의의가 있는 살림살이를 하라 함에서 나온 동기였나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1973년 연두기자 회견에서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했다. 중화학 공업화는 먼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가 크므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중화학 공업으로 선정했다.

중화학 공업화 정책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1970년대 초에 40% 미만이었던 중화학 공업화 비율이 1979년도 말에는 50% 이상이 되었다. 또한 중화학 공업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상품의 구조도 바뀌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xx님,

아, 그래서 나도 졸져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의 ‘윤동주와 마광수, 사마귀 타령’에서 뉘푼이 ‘절창(?)’을 했지요.

아니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말을 화중선은 100년전 적고 계셨습니까.

만약, 그녀가 지금 이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감xx 드림.



한국 수출 정책의 변화가 오다.

하지만 이토록 잘 나가던 가발 시장도 곧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1962~71년)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주요 생활 필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수입을 줄였고 섬유, 합판, 가발, 신발 등 가공업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또, 제철, 석유, 화학, 시멘트 등 일부 중화학 공업부문의 생산에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초, 세계시장은 중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일이 힘든 중화학 공업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웠고 공해 문제로 시설을 쉽게 늘리지 못했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 획기적으로 수출이 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73년 연두기자 회견에서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했다. 중화학 공업화는 먼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가 크므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중화학 공업으로 선정했다.

중화학 공업화 정책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1970년대 초에 40% 미만이었던 중화학 공업화 비율이 1979년도 말에는 50% 이상이 되었다. 또한 중화학 공업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상품의 구조도 바뀌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xx님,

아, 그래서 나도 졸져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의 ‘윤동주와 마광수, 사마귀 타령’에서 뉘푼이 ‘절창(?)’을 했지요.

어떻든 모든 여성들(women ― ‘woe to men’)이 어서 하루 속히 모두 인간 Black Widows가 되었으면 정말 더할 수 업시 좋겠습니다. 하 ― 하 ―

사마귀 뿐만 아니라 Black Widow Spider처럼 말이지요. 아, 또 그래서 가수 박지연(본명)은 ‘거미’로 활동하고 있나 봅니다.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5)

이준행 (공대 48)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기 직전인 1961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로 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였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가 바뀌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개발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때에 맞추어 가발 산업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나의 가발 행보와 위기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 이곳 뉴욕에서는 너도나도 가발을 팔기 시작했다.

유학생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돈이 되고 하니 가발을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운영하던 이는 별로 없었다. 이때부터 June Fashion 또한 가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가발이 잘 팔리니 한국에서도 여러 가발 회사가 생기고 커졌다. 그러나 어떤이는 전문 기술자가 있던 공장쪽으로, 어떤이는 영등포에서 자리를 잡고 가내수공업으로 직접 가발 수출을 하기도 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도 영등포 역으로 상장되던 전통적 가내수공 가발 업체들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발사업을 포기하거나 타업종으로 전환했던 한인들

인간의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팔리던 가발도 1970년대 중반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유행이 바뀌어 가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것이었다. 또한 한인들이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자 가발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가발 소매자들의 이윤은 대폭 줄어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격이 낮아졌지만 가발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

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한인 가발 소매업자들은 가발사업을 포기하거나 가방, 보석, 장신구, 모자 등의 상품을 추가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여 잡화상으로 전환했다. 그때부터 한인들의 사업이 다양해졌는데 패션잡화, 주얼리, 의류, 신발 등 여러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뒤돌아 보면 나에게도 다른 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끈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가발이란 수레바퀴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발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나는 사업을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손님과의 신뢰다. 나는 좋은 품질의 가발을 만들고 내 손님들은 그것을 받아 좋은 값에 파는 것 그것이 나의 보람이자 기쁨이다.

유행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드는 자의 것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한바퀴 돌아봐요자.”
“어제도 보셨는데...”
“이사람아, 어제 밥먹었다고 오늘 안먹냐?”

가발도 패션이다. 따라서 유행을 미리 예견하려면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였다. 또, 뉴욕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아주 좋은 도시였다. 이같은 이유로 나는 오전에는 회사에서 오후에는 자주 외출을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가발 붐이 식어가는 속에서 위기의식도 느꼈지만 유행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드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는 것 또한 매우 좋아했다.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았다. 내나이가 60이 넘는 어느 날, 이태리 유학시절 배운 이태리 말을 다이상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태리 어학원 해프닝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태리 말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태리 어학원의 수강신청 담당자는 작은 동양 노신사가 자신들의 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면서 놀랐는지 재빨리 나를 자리로 인도했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수업을 받고 시험도 보고 레포트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도 챙겨야하고 수업도 받아야했지만 무조건 신청했다. 그러다 며칠 후, 수업도중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졌다. 나는 급히 강의실을 빠져나와 계단에 주저 앉았다. 확연 관계자는 나의 이런 모습에 놀라 911을 불렀고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높아 쉬라는 처방이 내려왔다. “아 더 배워야하는데...”

내고집을 아는 집사람과 식구들이 강력하게 안말렸더라면 아마도 이태리 어학원에서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낸 1970년대 후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당시 한국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급속한 경기 후퇴와 물가 상승 및 국제수지 적자를 겪었다. 그러나 1975년 후반부터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6년 경제성장률은 1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77~78년에도 10%이상의 고도 성장을 유지했다.

연 10%의 고도성장을 누리니 77년에는 1인당 GNP가 1,000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경기 확장세로 인해 수출산업은 급신장을 했다. 1977년 중,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부동산 경기 불거짐 불어 건설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때 여기저기서 “돈”, “돈” 소리가 났는데 내사업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수출실적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박과장, 오늘도 가발 오더가 없냐?”
“네, 있기는 한데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팔아도 소식이 없냐?”
“죄송합니다. 사장님, 가발 가격을 개당 1불 25센트까지 내렸는데도 역부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는건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발 경기는 이렇지 않았다. 영창동에 있던 내 가발 공장의 공원 500여 명이 밤낮을 작업을 해도 만들지 못한 가발 물량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발 오더가 없어지니 죽을 맛이었다.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답이 없었다. 괜히 직원들에게 불 붙이 할 것 같아 공장안을 걸어 다녔다. 그러다 공장 구석에 몇명의 남자 직원들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호 계속>

주신:

말만 다섯의 아빠라서인지 몰라도 난 '페미니스트'라기 보단 '코스미스트(Cosmist)'라 자처해보리라. 내가 즐겨 시청하는 MBC일밤 '복면가왕' 프로에서 4관왕까지 오른 '소녀의 순정 코스모스(거미)'의 매력적인 매력에 나 또한 혼이 흠뻑 빠졌기 때문이다.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가 다 각기 자신도 바로 코스모스임을 깨닫게 해주었어라.

셋째: 조의(弔意)를 표하는 거라면 상차만은 피해야 자신 아니면 고발당해 실추 매장당한 가해자 남성 또는 둘 다일가?

넷째: 그 책임은 갑을 관계의 부당성인가?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갑'에 접근 또는 근접한 '을'의 실책일까?

미레임은 어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요?

태상 드림

사람 만들기

-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



이원택 (의대 65)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는 외부와 내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것과 내게 하여주는 것’의 결합체이다. 어떤 행위든지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chance’와 ‘choice’라고도 한다. 성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타고 난 것도 있고 개발해 나가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도 했고 성격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choice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을 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조금씩조금씩 자유의지를 키워나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아이는 자라면서 어른을 닮아가지만 자기가 좋은 것은 닮고 싫은 것은 닮지 않아도 된다. 모든 아이는 늙게 마련이고 모든 늙은이는 어린이가 진화(또는 퇴화)해서 생겨난 소산물이다. 나이가 들어서 별일이 없는 사람들은 소심적에 짝어 났던 사건들을 섭렵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는지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신분석학적 견해(Sigmund Freud)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세상만사를 과학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풍조가 팽배했을 때, 비엔나의 신경과 의사 프로이트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나아가서는 외적인 인간의 행동은 그 내부에 있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정신결정론(psychic-determinism)을 주장했는데, 아마도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a smoking gun)”라는 우리의 속담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신의 주체를 기(energy)로 봐서, 이와 같은 정신 에너지(psychic energy)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정신분석학(psych-analysis)을 창조해 냈다. 이것도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nip in the bud)”라는 한국 속담에서 감을 잡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세상이 하도 영악해져서 바람에 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는 씨가 먹혀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대충 과거의 향수를 달래는 차원에서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자.

정신 물리학에서 우리의 의식은 뇌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돌아온다고 했는데 뇌세포가 쉬고 있을 때는 의식이 없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뇌세포가 정지전위(resting potential)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 꿈을 꿀 때는 엄청난 작동전위(action potential)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스위치로 켜다 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의 흐름으로, 이것이 뇌간에 있는 망상체에서 시작해서 변연계가 있는 중뇌를 통해 대뇌의 신피질까지 도달하면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다고 그랬다.

이와 같이 뇌의 깊이에 따라 의식의 선명도가 달라지며, 그 밝기에 따라 또렷또렷한 의식(the conscious), 흐릿명당한 전의식(the preconscious) 그리고 오리무중인 무의식(the unconscious)으로 나눌 수 있고, 프로이트는 의식은 현실을 추구하지만 무의식은 쾌락을 추구하며 의식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 가능성에 따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나눈 것을 지형이론(topographic theory)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의식의 구조에 따른 구분이므로 나중에 나오는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과 아주 많이 헷갈리는 것이다.

프로이트 선생이 철이 들면서 인생은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는지, 지형 이론을 수정해서 본능(id), 자아(ego), 그리고 초자아(super ego)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을 내세웠는데, 저자는 이와 같은 분할은 정신의 구조(structure)라기보다는 정신의 기능(function)에 기준을 둔 것이므로, 구조 이론(structural theory)은 기능 이론(functional theory)이라고 해야 더 근사하다고 본다.

아무튼, “id”는 본능, 또는 아이로 표시되는 원천적인 욕구로서 거의 모든 인간에서 비슷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진화과정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일 것이다. “Ego”는 자아, 현실, 또는 성인으로 표시되는, id와 superego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놈으로,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 정신경계학에서 알아본 경기학설(games theory)은 이 ego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Super ego”는 도덕, 가치관, 또는 아버지로 표시되는 것으로 소위 인간의 양심과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좀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기능이다. 정신우생학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도 이 초자아의 신장에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와 같은 본능과 현실, 현실과 이상, 본능과 이상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때 인간이 불안해지며 이 불안이말로 모든 신경증(neurosis)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다. 즉 이 이원택 박사가 접을 하

나 두고 싶지만 딸린 처자식이 있고 도덕적 법률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것이므로, 그 갈등을 못 이겨서 소위 말하는 노이로제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회성 발달(Eric Erikson)

정신해부학에서 인간의 전두엽이 다른 동물에 비교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고 그 신피질은 출생 후에도 계속 팽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피질은 사회적 피질(social cortex)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성격 형성에서 모든 것을 성(sex)에 연관 지어서, 프로이트 선생의 남근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비판을 받은, 정신 “성” 발달(psycho sexual development) 이론은 설 자리가 없어졌으나, 남근을 머리에서부터 배꼽으로 옮겨놓은 미국의 정신분석가 Erikson(1902-1994)은 자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에릭슨은 주체성(identity 정체성이라고도 함)의 개념을 도입해서, 각 시기마다 자신의 독자성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적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그랬다. (아마도 북한의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Erikson의 수제자였던 모양이다.)

에릭슨의 학설은 모든 발달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 앞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후성설(epigenesis)에 토대를 두었다. 이는 마치 한국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과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1단계로 생후 1세까지의 유아기가 있어서 이때는 엄마의 보살핌을 통해서 기본적 신뢰감(basic trust)을 확립하게 되나 만약에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 평생 애증이 엇갈리는 경계성(borderline) 인격장애가 오기도 한다.

제2단계는 1세에서 3세까지로 이때는 소변 대변을 가리는 것이 지상 명제로 부모가 애들의 자율성을 도와서 통제 능력을 키워야지, 마냥 “옹야 옹야” 하거나 야단만 칠 경우, 애가 수치심이나 외구심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의존성이나 속박성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어떤 어머니처럼, 자기 애가 밖에서 언어타지고 오면 애 기를 살려준다고 쫓아나가 상대방 어머니와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제3단계는 3세에서 6세까지이며 이때는 많은 애들이 너무 극성을 떨기 때문에, 3살짜리 애를 가리키는 말로 미국에서는 “어린 악마” “공포의 세 살” 또는 “미운 오리새끼” 라는 말들을 쓰고 있다. 이때 애

들은 호기심이 많아져서 무언가 알려고 하고 장난감이나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부모가 너무 성가신 나머지 그와 같은 욕구를 무조건 억압하는 경우, 애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매사에 위축되는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제4단계는 6세에서 12세까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적 초등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학습과 집단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근면성을 길러주고, 이때 일을 하는 즐거움, 즉 성취감과 자부심을 배워가야 하나 반대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과잉보호를 받으면 열등감과 자만심으로 인해 성격이 뒤틀아가는 수가 많다.

제5단계로 12세부터 18세까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어서 이때는 성격 호기심이 왕성해지나 오직 학업만이 강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시기이다. 저자는 이때 콩나물시루 버스 안에서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근이 너무 팽창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붙잡고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즉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지만, 능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 우선 반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며 그 결과로 비행, 범죄, 약물남용, 정신병이나 자살 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좀 쾡쾡은 인간 중에 자기가 숭배하는 인물(idol)이나 따라가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드물다.

제6단계로 18세에서 45세까지는 그야말로 인생의 활동기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성관계, 동료관계, 상하관계, 가족관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밀감을 확립해야 하나 여러가지 인격장애로 이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결국 외톨이로 전락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7단계인 45세에서 65세까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한 자리씩 하는 황금기로 대부분 사람이 이때가 일을 제일 많이 또 열심히 하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 생산성 확립(자식농사, 부의 축적, 신분의 확립, 건강유지)의 실패는 타성에 의한 자기침체, 의미상실, 나아가서는 우울증으로 진행되기 쉽다.

제 8단계인 65세 이상은 적전 많건 자기가 열심히 일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로서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성공 여부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내부적인 만족감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자기의 인생이 쓸모없고 무의미했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방어 기제(Anna Freud-1936)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마련이어서 지령이도 건드리면 꿈틀거리고 강아지는 발길로 차고 핏거나 물려고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는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을 간다. 미세적으로는 외부에서 병균이나 이물질이 침입해 들어오면 생체는 이를 방어격퇴시키기 위해 아주 오묘한 ‘신이 주신’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더욱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신적인 공격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반응이 정신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와 같은 방어기제는 모든 생물이 개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개를 때렸을 때 때려드는 것을 미친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만 놔두었을 때, 또는 먹이를 주려고 할 때 대드는 개는 “미친개”라고 한다. 즉 같은 행동이나 생각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정상도 되고 이상도 되는 것으로, 방어기제 자체는 정신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적인(건강한)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방어기제는 자연발생적,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의식적으로 억제시키는 suppression을 빼고는).

Sigmund Freud의 딸 Anna는 아버지가 기술했던 수치심, 죄의식, 당혹감 등, 강한 감정들이 쳐들어오면, 자아는 이러한 위험신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나 무기를 가지고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보다 받아들이 수 있는 다른 감정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방어기제라고 그랬다.

이와 같은 방어기제는 마치 연장과 같아서, 사람이 정신적 사회성 발달을 해가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편리한 연장을 개발해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정제되어 다음 시기로 넘어가지 못할 때는 단속하고 몇 가지 안 되는 연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풀을 뽑을 때는 호미로 충분하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삽이 있어야 하며 나무를 벨 때는 도끼가 필요하다. 호미밖에 없거나 호미밖에 사용하지할 줄 모르면 호미 하나로 나무도 심고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일을 다 해내겠는가? 즉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zipper gate”를 무사히 통과한 William Jefferson Clinton같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적기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방어기제를 성장 시기에 따라 미성숙 방어기제와 성숙한 방어기제로 나누고, 또 미성숙 방어기제는 유아기성, 사춘기성, 청소년기성으로 나누며, 성숙한 방어기제는 성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인격장애의 분류에 많은 영향을 준 Vaillant(1979)는 이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서술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알아보기로 하자.

첫 단계는 소아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원시적인 방어기제로 자기매착정신병(psychotic)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우선 부정(denial)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는 의식

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50세의 남자가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을 때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왜곡(distortion)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욕망을 위해 외부의 현실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예쁜 식당 아가씨가 “자주 좀 오세요” 하는 것을 자기를 좋아한다고, 딱 졸 생각을 하지도 않는 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우이다. 부정과 투사가 합친 유치한 방어기전으로는 장마가 다그칠 때 자기가 아닌 3살짜리 동생이 그랬다고 발뺌을 하는 것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년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미성숙한(immature) 방어기제로, 백일몽 등의 공상(fantasy), 자기 잘못을 남한

을 수 없는 강한 감정을 만만한 데로 분출시키는 전치(displacement: 남편한테 화가 났을 때 자식한테 악을 쓰는 것. 그러면 그 애는 고양이를 발길로 찬다),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을 당한 후 자신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극적으로 수정하는 해리(dissociation: 친한 친구와 월남전에 같이 참전했다가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옛날부터 잘 알던 그 친구의 부모님을 못 알아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압시킴으로써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키는 격리(isolation: 사랑하는 애인이 차에 치어 죽었는데도 마치 아나운서가 얘기하듯 덤덤히 말함), 자신의 성격 또는 공격적 욕망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종교나 철학에 심취하는 지식화(intellectualization: 이것은 속박성 내지는 편집성 경향을 불러오기도 함), 자신에게 수용될 수 없는 감정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



데 뒤집어씌우는 투사(projection: 예를 들면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싶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그것이 잘 안 될 때 공연히 죄 없는 아내한테 뒤집어씌워서 의처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자기가 받아들이 수 없는 감정을 파고적으로 나타내는 행태(acting out, 예를 들면 16살짜리가 부모가 이혼한 날 남의 자동차를 훔친다든가), 분노를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수동적 공격(passive aggression: 예를 들면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선생님 어머니님 줄 알았어요?”라든가, 자신이 억압한 강한 감정이 신체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somatization: 화병이나 사춘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등), 어떤 인물을 극적으로 각색시키는 이상화(idealization: 김일성교, 박정희교 등) 등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로 청년기에서 나타나는 소위 신경증적(neurotic) 방어기제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방법들이다. 우선 참

드는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미운놈에겐 떡 하나 더 준다), 또 방어기제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흔한 것으로 고통스러운 내용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버리는 억압(repression: 남편이 와이셔츠에 루즈를 묻혀 오거나 이상한 여자가 전화해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함: 이에 비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의식적인 억제-suppression-는 Lewinsky같이 젖내 나는 애들은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똑똑한 여자 Hillary Rodham Clinton 같은 성숙한 어른이나 할 수 있는 고급방어기제임),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광을 피워보는 퇴행(repression: 네 살 먹은 어린애가 동생을 보고 나서 다시 오줌싸개가 된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는 합리화(rationalization: 취직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 회사는 어차피 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든가) 등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신적으로 건장한 성인

이 주로 쓰는 성숙한(mature) 방어기제로서 여기에는 자기의 갈등과 부족감을 타인을 도움으로써 대리 만족을 취하는 이타주의(altruism: 고학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기 봉급의 1/5을 장학금으로 내는 다든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humor: 이 이원택 박사가 정수리 머리가 자주 빠지는 것은 소갈머리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든가), 의식적으로 허용하기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욕이나 공격적 에너지를 격렬한 춤이나 운동으로 승화(sublimation)시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꼭꼭 눌러 버리는 억제(suppression)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인지발달이론(Jean Piaget 1896-1980)

우리는 방어기제를 공부하면서 정신활동의 무의식적인 면을 들춰 보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의식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자. 정신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IQ(지능지수) 또는 EQ(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를 쓴다. 감성지수는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즉 우리가 잘 모르는 수동적이며 주관적이며 무의식적인 정신활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지능지수는 1+1=2에서와같이 구체적이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이며 능동적인 정신활동을 말한다.

그러면 지능(intelligence)과 인지(cognition)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미 인지 장애(cognitive disorder)에서 인지란 각종 지각(perception)능력, 정위력(orientation: 이 말은 원래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따라 성지가 있는 동쪽으로 인도되었다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한국 정서로는 ‘남쪽 나라 십자성’이 더 어울리므로 차라리 ‘지남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근사하다고 봄),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통찰력(insight: 좁은 의미로는 병식) 등을 말하는 포괄적 의미의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한편 지능이란 언어, 계산능력, 논리성, 상식, 적응력 등 주로 학습에 의해 형성된 인지 활동(cognitive function)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활동은 지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말이다.

뇌의 생물학에서 사람의 뇌는 발육양상에 따라 출생 후에도 어떤 특정 부분에서 주로 그 지지 세포가 자라난다고 했는데, 이때 뇌세포가 먼저 발달하고 나서인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지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그것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발달한다는 설이 있다. 이는 (팔뚝이 굵어서 아령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령을 열심히 하면 팔뚝이 굵어지고, 역기를 열심히 하면 가슴살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은 맥락으로 아동의 인지발달과정도 내적성숙이나 외적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사람이 바로 호떡집 주인같이 생긴 스위스의 심리학자 Jean Piaget이다. 즉 인지의 발달은 조물주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



최은관 (상대 64)

<역사 이야기>

크레테 섬의

생명나무 전통

생명나무에 꽃이 피었을까? 물론이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다. 그러나 구약 어디에도 생명나무의 이파리나 꽃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 잠깐 나오고, 그 뒤에 모세가 유대인을 애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생명나무와 이스라엘 사람을 연결시키기가 쉽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도 생명나무의 그림이나 조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창세기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유대인이 직접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1200년경이니, 구약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페니키아인으로부터 빌려온 이야기인 것 같다.

크레테의 아이아 트리아다 마을의 별장에서 발견된 석회석 관은 많은 생명나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동물을 희생하는 과정과 신성한 나무와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그려져 있다. 이 석관은 기원전 1350년 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아케나톤(Akhenaton) 왕이 애집트를 다스리던 시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온 때보다 1백년이나 앞선다. 이때 이미 생명나무는 미노스 시대, 크레테 사람의 일상 생활, 종교 생활에서 중요했다.

이 글에서는 크노소스 궁전과 아이아 트리아다 석관에 그려진 생명나무 꽃과 열매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크노소스 궁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수메르인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있던 에덴 동산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생명나무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뽕나무가 있었으므로 이 전통을 글로 남겼고, 이를 서양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수메르인에게는 예술품을 만들 재료가 진흙뿐이었고, 그래서 수메르인은 진흙으로 서판과 지꾸랏(zigurrat)을 남겼다.

생명나무의 전통은 애집트, 아라비아 반도, 키프로스, 페르시아에도 남아 있고, 중앙 아시아의 우라르트 왕국에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의 대부분은 기원전 첫째 천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이나 기타 예술로 생명나무의 전통을

남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크레테 섬에 남아 있다.

크레테의 크노소스(Knossos)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 된 도시이다. 크노소스(Knossos) 궁전은 지중해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푸른 바다 한 가운데, 크레테(Crete) 섬에 지은 궁전이다. 궁전은 2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자리를 잡았다. 이 미노스인들은 생명나무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궁전은 크레테의 왕 미노스(Minos)가 괴물 Minotaur (인신우두)를 가두려고 지었다고 한다.

초기 궁전 시대(기원전 1900-1700년)에 왕들이 등장하여 도시 국가들을 세우고 궁전을 지었다. 첫 궁전은 기원전 1900년에 지었는데, 당시에는 18,000명 이상이 그 지역에서 살았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십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 궁전은 기원전 1600년경에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되었다. 신궁전 시대(기원전 1700-1400년)에 크노소스·파이스토스·말리아·자크로스에 새 궁전들을 다시 지었는데, 크노소스 궁전이 이 중에서 가장 크다.

왕좌가 있는 방을 비롯하여, 지금 남아 있는 유적은 이 시대의 것이다. 이 시기에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이 건축과 항해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민으로서 환영받았다고 한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84 -425년) 페니키아인(Phoenician)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다가 지중해로 이주했다고 한다.

궁전의 치장은 본토 주민들이 했어도, 건축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듯하다. 이 페니키아인의 상당수가 기원전 1375년 경에 궁전이 불에 타서 파괴된 후에 떠났고, 고향인 가나안 땅, 지금의 레바논으로 돌아가 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글자를 전수해 준 듯하다. 기원전 1500년 이후는 미노스인이 쇠하고, 미케네인이 권력을 장악하던 때이다. 몇 백 년 뒤에, 두로의 임금 허람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우려고 기술자와 레바논의 목재를 보냈는데 (열왕기하 2장), 두로는 페니키아인의 도시 국가였다.

궁전 가운데 장방형의 너른 돌이 있는데, 여기는 淨化 의식과 같은 공공 행사를 위하여 남겨 놓았고, 지하층에도 햇빛이 잘 든다. 가운데 궁전 돌이 비었기 때문에, 주위의 건물이 자연 조명을 최

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날개가 이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뻗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쪽 날개는 주로 집과 작업장이고, 서쪽 날개는 창고이다. 돌 동쪽에는 대기실 (anteroom)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보좌와 연회실이 있다. 북쪽 대문 바깥에는 세금 징세소와 청화예식으로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고, 남쪽 날개에는 웅장한 대문(Propylon)이 있다.

(지하 층을 포함하여) 궁전 대부분이 3층이고, 제일 낮은 곳은 2층이다. 처음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자주 지어올려 기원전 1500년 경에는 일부가 4층 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미노스 왕과 왕비는 각자 지하층에 자기 아파트가 있다. 경비원이나 사제들처럼, 궁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궁전 바로 바깥에서 2층 건물과 지하층이 있는 호화 주택을 짓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모여 집단으로 살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물 문제일 것이다. 먹거나 목욕할 물을 매일 길으려면 힘이 드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근처의 케팔라 언덕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을 이용하려고 그 언덕 밑에 궁전을 지었다. 하수의 처리는 직경 10에서 15 센티미터나 되는 테라코타 도수관(導水管)을 지하에 연결하여 근처의 강으로 보냈고, 그러한 도수관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 하수도 처리 방법은 현대 문명의 기초이다. 이 기술을 로마 사람이 배웠고, 이들은 다시 유럽 사람들에게 전했다. 한국에 현대식 하수도가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라고 한다.

2. 왕좌가 있는 방



왕좌가 있는 방은 장방형 돌의 서북쪽에 자리를 차지한다. 옆 방의 벽에는 생명나무의 꽃잎 장식이 한 줄로 가로로 드리워져 있다. 왕좌가 있는 방에는 그리핀(griffin) 또는 스팅크스 두 마리가 보좌를 지킨다. 그리핀 어깨 부분에 생명나무 꽃이 보인다. (키프로스 섬에서 출토되는 여러 조각에서도, 스팅크스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동물이다.) 보좌는 석화석(alabaster)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색이 검다.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권위를 상징하는, 황소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3. 왕비의 아파트 (Queen's Megaron)

왕비의 아파트는 중앙의 뜰 서남쪽, 담가까이에 붙어 있다. 조용한 곳을 찾은 듯하다. 이 방은 왕의 아파트와 제일 가깝다. 왕비의 아파트에는, 옆으로 엮어

진 E-자로 된 입구를 생명나무의 꽃이 장식하고 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돌고래 벽화가 그려져 있다. 35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니! 여기서 발굴된 천장 조각에도 소용돌이 무늬 속에 생명나무 꽃이 있다. 파손된 왼쪽 부분의 띠는 S-자 줄기 무늬 속에 작은 생명나무 꽃이 세 송이가 보이는데, 궁전이 일부 파괴된 후에, 복원하느라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그림을 그리고, 생명나무 꽃도 줄기가 없이 크게 그렸다.



4. 생명나무 열매가 새겨진 항아리



이것은 이라클리온 박물관에 소장된 항아리인데, 표면 전체가 생명나무를 그렸다. 세로로 된 띠는 줄기를 표시하고, 네모 속의 점은 꽃 봉오리인 듯하다.

맨 윗줄에는 S-자 줄기와 함께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생기는 것을 그렸고, 둘째 줄에는 만발한 꽃, 셋째 줄에는 줄기 속에 열린 동그란 열매, 넷째 줄에는 꽃받침과 열매, 다섯째 줄에는 동그란 생명나무 열매, 여섯째 줄에는 꽃잎들이 새겨져 있다.

5. 석관에 새겨진 생명나무 꽃

아이아 트리아다(Hagia Triada, Holy Trinity)는 크레테 섬 남부에 있는 유적지인데, 파이스토스에서 가까운 마을이었고, 로마 시대에 이곳은 궁전은 없어도, 부자들이 별장을 이 마을에 많이 지었다고 한다. 기원전 1400년 경에 불에 탄 뒤에 마을을 다시 지었다.



이것은 이라클리온 박물관에 전시된 석
>> 24면에 계속



강에드 (사대 60)

A Travel Journal

Whenever I travel, I usually share most of the trip journals and pictures with our children in the States daily by emails. The following is an abstract from the trip journal written for September 27, 2017.

September 27, 2017, Wednesday, clear, mid 60s. Zurich.

This is our second trip to Zurich, a beautiful city with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half a million people, not including the metro area. It's the most populous city in Switzerland. The city was built more than 2,000 years ago by the Romans and was a center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The majority of Swiss people are Catholic and Protestant. Like many other cities and towns in Switzerland, Zurich has been developed aggressively around a lake, the Zurichsee (Zurich lake) along the Limmat River. My wife and I visited Zurich many years ago and since then we saw huge changes, with many big modern buildings, hotels, and shops. Zurich is often ranked as one of the top ten most livable cities in the world and one of the biggest global financial centers. The official language here is German. Among young people, English is frequently used.

During my stay in Zurich, I was impressed that, like in Amsterdam, many people ride bicycles to help the environment. Trams and electrically powered buses in the city are major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here, both sharing the same lanes of the street and sometimes back to back, in many parts of the city.

The trams run in an impressively orderly fashion, even in the crowded sections of the city, yielding tracks to other tram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s when the tracks are crossing or merging.

Chocolate is recommended to bring home as a gift from Zurich.

We spent two nights already in Zurich and will leave here tomorrow.

Last night, we saw an opera, "Die

Zauberflöte" by Mozart at the Opernhaus Zurich. The Opernhaus, the home of the Zurich Opera and Ballet, is located on the bank of the Zürich Lake with the huge plaza in front of it. The building is architecturally neo-classical, impressive, and grand. We saw ornate bursts of Wagner, Mozart, Weber, Goethe and Schiller in the central façade of the white building. There are many decent restaurants and cafeterias near the opera house, creating a romantic environment.

Our schedule for today includes a trip to Interlaken, riding the Golden Pass Panoramic Express from Interlaken to Lucerne and attending a concert in Zurich at night. The schedule was intense and busy, as we departed and returned to Zurich on the same day.

During the last thirty some years, we have visited over 45 different countries, in many cases visiting a particular country several times. Some trips lasted for more than a month. We recently revisited several cities in Europe for three weeks. As in the past, my wife and I planned and researched all trip schedules and itineraries. We made all reservations for the hotels, concerts and trains at home before we departed for the trip. Planning a trip was exciting, challenging and entertaining. We remember having had to go to the book stores to get information for overseas many years ago. Now with the Internet, planning your own trip has become very easy, and you can find most information for free at home. The GPS is a must, saving time and reducing the need to ask for directions.

I would like to mention a little about the hotel where we were staying in Zurich. The hotel is located on a hill overlooking Zurich, about one mile from the city center. The neighborhood is mostly residential and quiet. From our hotel room, we see the spectacular view of the city, the peaceful Zurich Lake and surrounding beautiful suburbs. The transportation to the city center was very convenient, with buses, trams or trains taking us to most of our destinations within 10-15 minutes. The best part

of the hotel is the huge thermal bath spa, covering three floors. There is an enormous, approximately 600-700 square feet, thermal hot out-door whirlpool on the rooftop – I have never experienced a more strongly powered whirlpool. While people are enjoying the hot thermal whirlpool, they can look down over Zürich and the nascent scenes of fall in the neighborhood. One floor below, there is a huge dimly lit resting cafe for the whirlpool guests. On the underground level, there are also large Irish thermal baths, steam rooms, sauna rooms and meditation rooms as well as more whirlpools. It was a good relaxing experience to enjoy such unique amenities of the hotel during the vacation.

After having the wholesome buffet breakfast in the library dining room of the hotel, we took a train at the Zurich HB station to Bern station to go to Interlaken. We visited Interlaken many years ago. Interlaken is well known for scenery around two lakes and the famous Jungfrau.



When we got to Interlaken, we noticed that most parts of Interlaken have changed to modern tourist areas. The streets are mostly touristy – many restaurants and cheap souvenir shops. The Royal hotel where we stayed last time was still there but attractively renovated.

I could still recognize the main street. I saw the year-round snow-covered summit of the Jungfrau from the street in front of the hotel and also the high mountains and the river running behind the hotel. The whole area has been over-developed during fifteen years. Maybe I am missing the old images and the charm of the small tranquil village.

From the street, we could see the Jungfrau peak showing its awesome might among other surrounding steep mountains. Sometimes lightly floating clouds made the summit look mysterious and picturesque. Luckily, we even saw a colorful rainbow around the summit for a while.

After spending some time there, we left Interlaken and took a scenic

sightseeing train, called the Golden Pass Panoramic Express (or Die Zentralbahn), running between Interlaken and Lucerne for two hours. Taking the train was my wife's idea and it was the reason why we came to Interlaken today. The scenery from Interlaken to Lucerne along the lakes was panoramic and grand. We met a Swiss couple who was so happy to be on the train to enjoy the scenic ride.

So many beautiful and memorable scenes drifted by, like serene lakes, small picturesque villages and white cascades from mountains into the lake. We also saw several white sailing boats docked in a small, quiet town marina. The color of the lake water changed from time to time, from emerald to cobalt to blue, depending on our direction or angle of view. Most of the time during the ride, we saw the lake water at the bottom of mountains, several hundred feet below from the narrow train track on one side. No sooner had the scenes scared us than we were overwhelmed with stunning high rocky cliffs on the other side, waylaid the train. The whole scene was breathtaking and dazzling. It inspired our loud and countless exclamations.

Sometimes we could see a dozen or so cows peacefully grazing on the steep mountains near the peak. I was wondering how they got to such high areas and whether they have some sleeping bivouacs at night or in cold winter.

The lurching train was running slowly mostly on a single track, curving frequently along the stunning cliffs. Sometimes, the train had to crawl down very slowly because the train tracks were too close to the rocky cliffs on one side of the mountains. We were so scared for fear of being hit by the cliffs.

Switzerland is an amazingly beautiful country full of wonderful lands, fresh air and water. Although most of the country looks mountainous and rural, surprisingly, the current major contributors to the national economy are manufacturing, financials, tourism and services. Less than 2% of the population is employed agriculture. We remember that, in the past, the Swiss banks, together with Cayman Island banks, were notoriously used as offshore deposit banks by wealthy people for tax avoidance and money laundering purposes.

When the train finally arrived in Lucerne, we waited for the next coming

관(sarcophagus)의 사진이다. 이 석관은 크레테 섬의 아이아 트리아다 마을에서 발굴되었고 석회석으로 만들었다. 석관 좌우에 세로로, 용솟음치는 듯이 유연한 S-자 줄기 속에 감겨 있는 것은 생명나무 꽃이다. 꽃술은 갈 색이고 꽃잎은 흰 색이다. 이 석관의 연대는 기원전 1350 년경이라고 한다.

석관의 앞면과 뒷면 모두가 제사지내는 장면을 묘사한다. 제사는 아마도 궁전 한 가운데의 넓은 뜰에서 행했을 것이다. 앞면의 바른 쪽 절반에는, 두 사제가 희생 동물을 뜰에 안고 줄을 서 있고, 셋째 사제는 배를 들고 붉은 벽돌의 계단 앞에서 있다. 이 배는 죽은 사람이 타고 저 세상 엘리시움으로 갈 배이다. 아직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었고, 제사를 적절히 지내면 부자와 영웅들은 엘리시움(Elysium), 복된 자들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되었다.

맨 바른 쪽에 팔다리가 없이 꽃꽂이 서 있는 사람은 죽어서 미라가 되어 석관 속에 누워 있는 사제이자 임금. 임금 뒤에는 시체를 두는 (지하) 저장소가 있고, 이것은 생명나무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임금 앞에는 제단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 선인장 같은 나무가 임금 앞에 있다.

맨 왼쪽에는 두 개의 양날 도끼(labrys)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두 기둥은 제단을 상징하는 듯. 한 여인이 항아리에 든 황소의 피를 두 기둥 사이에 놓인 항아리에 쏟아붓고 있다. 도끼 맨 위에는 새(비둘기)가 앉아 있다. 관을 쓰고 두 팔로 피가 든 두 항아리를 막대기로 쥔어 들고 있는 여인은 아마도 여사제인 듯하다. 그 뒤에 긴 옷 입은 갈색 피부의 남자가 고대의 칠현금(lyre)을 뜰고 있다. 양날 도끼는 신성한 송아지를 바칠 때 쓰였다는 설이 있으나, 희생물을 죽일 때는 주로 칼이 쓰였으니, 이 설은 신빙성이 없다. 김부스타스(Gimbustas)는 2종으로 된 양날 도끼가 나비의 여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비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종으로 된 양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초기에 반드시 여사제였다고 한다.

뒷면의 왼쪽은 일부 파손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아마도 두 여인이 있었을 터이고, 세 번째 여인은 머리 치장을 보아 여사제인 듯한데 제물을 붙들고 있다. 가운데는 제물 바치는 상 위에 송아지가 밧줄에 묶여 있고, 상 밑에는 사슴과 토끼가 있으며, 뒷 배경에는 젊은 남자가 피리를 불고 있다.

바른 쪽에는 생명나무 꽃과 S-자 형태의 줄기와 생명나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제단이 있고, 단상 위에는 한 나무가 있는데, 아마도 생명나무일 것이다. (1900년에 Arthur Evans는 크노소스 궁전의 발굴을 시작했고, 이 작업은 35년이나 계속되었다. 1906년에 에반스는 미케네 시대의 거룩한 나무와 기둥 제단에 관하여 긴 논문을 썼는데, 이때 궁전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그는 생명나무 꽃을 못 본 듯하다. 이 논문에는 전혀 생명나무 꽃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따라서 이 거룩한 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을 짐작하지 못한 듯하다.) 제단 앞에 놓인 기둥과 그 꼭대기의 양날 도끼는 제단을 상징하는 듯. 그 앞에 놓인 작은 상 위에 작은 그릇이 있고 한 여인이 그릇에 담은 것을 바치는 듯하다. 또한 일종의 화병이 상 위에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그릇 위에 과일들이 있다. 이 그림 위와 아래에는 생명나무 꽃으로 장식된 띠가 가로로 펼쳐 있는데, 꽃술은 갈색이고 꽃 잎들은 희고, 이파리는 초록색이다.

석관의 왼쪽 옆면에는 두 여인이 그리핀 두 마리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있으며, 위와 아래에 가로로 생명나무 꽃의 띠가 있다. 바른쪽 옆면은 잘 보존되지 않았는데, 두 여인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

차에 앉아 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전차는 기원전 2100년 경에 우르에서 쓰인 기록이 있으나, 미케네인은 이들의 영향을 직접 · 간접으로 받은 듯하다.

6. 맺는 말

생명나무의 꽃은 크노소스 궁에 널리 있다. 아직까지 풀이하지 못하는 파이스토스(Phaistos) 디스크의 맨 가운데에도 보이고, 여왕 침실의 입구에도 있다. 보좌를 지키는 두 마리의 그리핀도 생명나무 꽃을 어깨에 달고 있다. 정화(淨化) 예식을 그린 그림에도 젊은이들이 허리띠에 생명나무 꽃장식을 달고 있다. 푸른 옷을 입은 여인들의 옷자락에도 줄기 무늬가 있다. 궁전 천장에 있는 소용돌이치는 줄기 무늬 속에 생명나무의 꽃이 있다. 크레테에서 발견된 항아리에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꽃과 줄기가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꽃은 미노스인의 일상생활에 크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미노스인은 아담의 직계 후손이었을지 모른다. 여기에 정착하여 크노소스 궁전의 건축에 일조했던 페니키아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갔을 때, 이 생명나무 전통을 가지고 간 듯하다.

train for the transfer to Zurich. We toured the town of Lucerne yesterday. Many years ago, we stayed in Lucerne. So, it was a good revisit yesterday. Lucerne is a small but an old impressively picturesque town that is very popular to the foreign tourists. Yesterday, we saw many cohorts of tourists crowding the town, mainly people from China. We saw numerous commercial signs in Chinese letters in the fashion shopping area. It reminded us of the Myung Dong Street in Seoul during our visit to Korea last year. We learned that approximately 5 million people visit here every year because it is embedded with many beautiful attractions. They include, among many others, the cobalt color Lucerne lake, the Kappellbrueck (Chapel Bridge) over the lake, the spectacular Pilatus, medieval architecture with small streets in the old town sections, and snow-capped mountains surrounding the lake and the town. Simply, Lucerne is a small town blessed with many kinds of natural beauty.

Upon returning to the hotel in Zurich, we went up to the hotel rooftop in order to enjoy the thermal hot Spa pool and to get some relaxation in the steam room. After having dinner, we left the hotel for a concert at the MAAG Tonhalle, which is a temporary musical hall constructed for the Zürich Tonhalle Orchestra. The orchestra's home music hall is currently being renovated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0.

The first part of the concert was a viola concerto.

After intermission, the Orchestra played Beethoven's Ninth Symphony. It was a great and moving performance. The performance by the orchestra, four vocal soloists, massive chorus and energetic conductor exceeded my expectations. I imagined the orchestral performance as an artist creating a great painting that brings beautiful wonder and imagination to viewers. The marvelous execution of each note by each instrumental player, conductor and chorus engulfed me completely. All movement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re fantastic, especially the elaborate vocals and choir in the fourth movement, which were like powerful thunder, but in complete harmony and balance that I have never felt before. As I remembered some of the lyrics of the choral, starting with Schiller's familiar poem, "An die Freude" (Ode to Joy), I was overjoyed by the inspirational masterpiece. Not only to conquer the individual pain from his deafness but also to provide hopes to solve all human pains, Beethoven must have taken the path of the art of music.

No wonder the Ninth Symphony endures as one of the most performed symphonies in the world. I can only say Beethoven was not only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but also a great philosophical humanist

who challenged and created a secular humanism. To me, the Ninth Symphony is one of the pinnacles of great musical works.

I was so impassioned during the performance that I sometimes held my wife's hand to reaffirm our joy and happiness. I must say that our attending and enjoying the Symphony No. 9 was a perfect finale for our vacation.

My wife and I shared the happy feelings about some of the meaningful itineraries during this three week trip (which were planned, thanks to my wife) and will remember most of them for many years to come. For example, we attended the opening night concert at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RCO) in Amsterdam (Note: RCO is one of the three best orchestras in the world.



The other two are Berlin Philharmonic and Vienna Philharmonic. The Royal Concertgebouw is also one of the Four acoustically best symphony halls in the world. The other three are Musikverein in Vienna, Symphony Hall in Boston, Konzerthaus in Berlin).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was present at the concert. We also enjoyed the formal dinner at the same RCO opening night before the performance. We visited the Rijksmuseum (the Dutch National Museum) in Amsterdam (we visited the Van Gogh Museum about many years ago.) We toured Monet's home and beautiful garden in Giverny.



We also visited the Museum of Fine Arts in Lyon and attended Die Zauberpflöte by Mozart at the Opernhaus, Zurich and tonight's Ninth Symphony by Beethoven.



The trip was a tremendously rewarding and beautiful experience.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유우용 (공대 63)	500	후원금		배정희 (사대 54)	200	시카고		손재옥 (가정 77)	500
		오인환 (문리 63)	125			양거명 (약대 49)	25			송영두 (의대 56)	500
47,347.11 (11/29) 6,511.97		임종식 (의대 51)	1,000	남가주		이경림 (상대 64)	185	김연화 (음대 68) 150		신성식 (공대 56)	200
총동창회 보조금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김영순 (음대 59)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이용락 (공대 48) 500		제갈은 (문리 59)	150
		윤상래 (수의 62)	1,000	김원탁 (공대 65) 200		이전구 (농대 60)	1,100	조형원 (약대 50) 500		조정현 (수의 58)	300
3,000		오인환 (문리 63)	100	김인중 (농대 74) 25		이준행 (공대 48) 2,000				조화연 (음대 64)	150
		서동영 (사대 60)	200	김일영 (의대 65)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아리조나		플로리다	
총동창회 오찬 협찬		정창동 (간호 45)	100	김종표 (법대 58) 500		정창동 (간호 45) 75		진명규 (공대 70) 100		전영자 (미대 58) 50	
				김창신 (사회 75) 200		조명애 (간호 47) 75				커네티컷	
3,000				민수봉 (상대 55) 25		조정현 (수의 58) 100		오레곤		유시영 (문리 68) 500	
				박인창 (농대 65) 100		최한용 (농대 58) 500		김상순 (상대 67) 200			
업소록 광고비		윤상래 (NE)	300	박중수 (수의 58) 1,100		뉴잉글랜드		송재용 (의대 69) 200			
		정정옥 (NE)	200	백옥자 (음대 71) 400		고일석 (보건 69) 1,000					
서동영 (사대 60) 240		고일석 (NE)	200	위종민 (공대 64) 200		김문소 (수의 61) 80		워싱턴 DC		케롤라이나	
신동국 (수의 76) 240		김문소 (NE)	100	이명선 (상대 58) 500		김병국 (공대 71) 65		강길종 (약대 69) 200		한광수 (의대 57) 200	
이경림 (상대 64) 240		김연화 (음대 68)	200	이범모 (치대 74) 200		김선혁 (약대 59) 100		권철수 (의대 68) 200			
이종묘 (간호 69) 240		신응남 (NY)	200	이법식 (공대 61) 200		김은한 (의대 60) 850		박평일 (농대 69) 300		하와이	
이준영 (치대 74) 240		손재옥 (PA)	1,000	이영송 (치대 63) 200		김제호 (공대 56) 100		서윤석 (의대 62) 200		김승태 (의대 57) 400	
정재훈 (공대 64) 240		황선희 (PA)	200	이영일 (문리 53) 200		송미자 (농대 62) 65		오인환 (문리 63) 200			
주기목 (수의 68) 240		합계:	2,400	임창희 (공대 73) 100		윤상래 (수의 60) 40,100		이문형 (공대 46) 100			
김일영 (의대 65) 240				전경철 (공대 55) 2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인옥 (68) 25		하트랜드	
				정동구 (공대 57) 500		이희규 (공대 69) 200		장효열 () 100		오명순 (가정 69) 500	
광고비		김동훈 (법대 56)	100	정재훈 (공대 64) 110		이재신 (공대 57) 2,000		한의생 (수의 60) 200		이상강 (의대 70) 10,000	
DUO Info. 1,200		김은섭 (의대 53)	100	최은관 (상대 64) 300		이희규 (공대 69) 200				최은관 (상대 64) 300	
DUO Info. 400		이건일 (의대 62)	125	최준권 (문리 59)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워싱턴 주		휴스턴	
DUO Info. (10) 400		이원섭 (농대 77)	100	하기환 (공대 66) 200		정정옥 (의대 60) 1,100		하주홍 (경영 77) 25		진기주 (상대 60) 500	
DUO Info. (11/6) 400		임필순 (의대 54)	100	하선호 (치대 81) 200		정태영 (문리 71) 1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DUO Info. (12/8) 400		전방남 (상대 73)	200	북가주		정혜숙 (간호 66) 65		조지아			
신응남 (농대 70) 1,200		전상욱 (사대 52)	500	강정수 (문리 62) 125		최선희 (문리 69) 200		주중광 (약대 60) 2,000			
SeAh 이병준 1,500				이성형 (공대 57) 150		최홍균 (공대 69) 1,000		허지영 (문리 66) 2,000			
발전기금 (12/6) 700		지부 분담금		김윤범 (의대 54) 200		루이지애나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465		뉴욕 3,000		한상봉 (수의 67) 240		강영빈 (문리 58) 2,000					
		북텍사스 550		뉴욕		샌디에고					
나눔		알라스카 200		강에드 (사대 60) 200		김군빈 (법대 56) 75					
황선희 (공대 74) 100		캘리포니아 200		김명철 (공대 60) 200							
		테네시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모교발전기금				박두선 (공대 68) 100							
권기현 (사대 53) 1,000				박상원 (문리 54) 40							

떻게 하면 주위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 하고 노심초사한 끝에 얻어내는 노력의 결과로, 이와 같은 이론이 나중에 치료 편에서 나오게 되는 인지 치료나 행동 치료의 모태를 이루고 있다.

피아제는 인간의 성장과정에 따라 인지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기로 구분했는데 첫째 감각운동기(sensory motor stage)는 생후 2살까지의 기간으로 이때는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반사작용(reflex)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린애는 입에 무엇이 들어오면 무조건 빨려고 하고 손에 무엇이 들어오면 맹목적으로 움켜쥐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하는데, 너무 큰 고무젓꼭지를 주면 필사적으로 입 모양을 고무젓꼭지를 뺏기 위해 적당하게 조절(accommodation)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큰 물체를 주면 유아는 자신이 잡는 방식을 적절히 바꾸려고 안간힘을 쓴다.

두 번째 단계인 조작기 전 단계(pre operational stage)는 2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로 이 나이에서는 추리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물활론(animism)적 경향을 보인다. 이때가 바로 인형이나 장난감을 의인화시키는 시기이며,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시기이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자아중심적이다.

세 번째는 단순한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라고 해서 7세에서 11세까지의 기간으로 이때는 보존개념이 형성되어 양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형태가 달라져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숨 한 근이 더 무거운가, 쇠 한 근이 더 무거운가?”로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이때는 또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고 탈 중심화(decentralization)를 이룩하게 되는데, 이는 친구들과 또래관계를 이루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려심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자기중심 생각을 탈피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격장애로 발전하는 것이다.

숨 한 근과 쇠 한 근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다는 등 대상 간의 공통점, 같은 무게라도 어떤 것은 물에 뜨고 어떤 것은 가라앉는다는 차이점, 그리고 숨으로 쇠를 뜨는 유리를 싸면 부드러워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어 사물을 분류화(classification)하고, 무거운 것 중에도 쇠, 돌맹이, 점토, 나무 순서로 그 강도에 따라 순서로 나열하는 서열화(serialization) 능력이 발달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토대를 만들어 주나니 이와 같은 단순한

조작기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절대로 과학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완성된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로 이는 11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이며 차차 자신의 사고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알게 되어,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때쯤 되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구조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화(organization)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일일이 자기가 다 체험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광범한 의미의 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영호 (의대 57) 강정훈 (미대 56)* 강종경 (공대 48) 강홍채 () 강희창 (공대 57) 고석원 (문리 50) 공기광 (문리 59) 권기상 (상대 72) 권시한 (문리 52) 권영달 (문리 50) 권치균 (공대 51) 김근호 (문리 62)* 김경옥 (미대 61) 김광은 (음대 56) 김구자 (미대 61) 김기환 (법대 53) 김남연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병연 (공대 68) 김병환 (공대 58) 김상은 (약대 59) 김석훈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성진 (공대 50) 김성환 (의대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걸 (법대 54) 김순길 (문리 61) 김순자 (치대 57)*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8) 김원준 (수의 64) 김원진 (약대 59) 김원호 (약대 63) 김용재 (의대 60) 김원택 (공대 64) 김원훈 (상대 48)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정희 (음대 56) 김재영 (음대 62)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창우 (음대 53) 김창진 (사회 75) 김태윤 (법대 53) 김택수 (의대 57) 김현향 (공대 64) 김홍록 (문리 60)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복국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동수 (공대 73) 문인일 (공대 51) 민병곤 (공대 65) 민병돈 (문리 58) 민수봉 (상대 55) 민밀기 (약대 69) 배대곤 (수의 57) 박병원 (의대 49) 박부강 (사대 64) 박성우 (상대 58) 박순자 (간호 60)	박원준 (공대 53) 박우성 (사회 77)* 박윤수 (문리 48) 박민수 (농대 64) 박일우 (의대 70) 박임하 (치대 56) 박은주 (간호 70) 박종수 (수의 58) 박찬호 (미대 63) 박정자 (간호 61) 박치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태환 (미대 60) 배동원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배성진 (대원 79) 배국재 (문리 52) 배효식 () 백만일 (공대 64) 백성식 (약대 58) 백소진 (문리 55) 백낙연 (공대 53) 백옥자 (음대 71) 변영근 (약대 52)* 서동영 (사대 60) 서명식 (문리 61) 손기용 (의대 55) 손선행 (간호 69) 손학식 (공대 61) 신규호 (수의 76) 신규식 (농대 61) 신상화 (공대 58)*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양광주 (문리 58)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8) 양은혁 (상대 56) 양창호 (상대 54) 오선웅 (의대 63)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석홍 (음대 66)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희자 (음대 68)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3) 윤희석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경수 (수의 73)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명선 (상대 58) 이문상 (공대 62) 이방기 (농대 59) 이복식 (의대 58) 이복식 (공대 61)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성자 (간호 76) 이소희 (의대 61) 이승희 (간호 47)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장길 (치대 63)	이정근 (사대 60) 이정리 (사대 60) 이정화 (공대 52) 이정희 (음대 55) 이재창 (약대 56) 이재선 (농대 58) 이종모 (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종호 (상대 53) 이재천 (문리 55) 이해영 (공대 56) 이호진 (간호 74) 이홍표 (의대 58) 이휘영 (법대 59)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상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진환 (치대 68)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소현 (미대 65) 장인숙 (간호 70) 장철봉 (수의 65) 장정국 (공대 55) 전나권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정길택 (수의 54) 정동주 (공대 57)* 정상진 (상대 59) 정연호 (상대 63) 정예진 (상대 63) 정재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태무 (사대 44)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 황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 경 () 조종훈 (의대 59) 조만연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상자 (치대 57)* 조순자 (공대 60) 조태준 (문리 59) 조임현 (간호 72) 조재길 (사대 61)* 주정래 (상대 65) 지인수 (상대 69)* 차민영 (의대 76)* 최경홍 (공대 60) 최동욱 (의대 59) 최 형 () 최영근 (사대 61) 최은관 (상대 64) 최재용 (인문 54) 최종권 (문리 59) 하기환 (공대 66)* 하선호 (치대 81)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한은실 (음대 61) 한홍택 (공대 60) 하영동 (공대 58) 하영진 (문리 61) 현기용 (문리 64) 홍동식 (법대 64) 홍석관 (사대 47) 홍성선 (약대 73)	홍수웅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 (의대 61) 강정수 (문리 62) 강지수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용범 (의대 54) 김옥경 (음대 69) 김원기 (사대 50) 김정복 (사대 55)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음대 64) 박경홍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종성 (법대 53)* 박창영 (상대 52)* 부영무 (치대 72)* 손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안병철 (공대 58) 안호삼 (문리 58) 온기철 (의대 65)* 유우영 (의대 55) 유승일 (공대 59)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이홍기 (공대 62) 임정환 (음대 76) 정규남 (공대 52) 정지선 (상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유석 (의대 58) 조태목 (사대 60) 최경선 (농대 65) 한상봉 (수의 67) 홍길삼 (문리 61) 홍병익 (공대 68) 황동화 (의대 65)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애드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약대 56)* 고수정 (간호 69) 곽노섭 (문리 49) 곽상준 (약대 55) 곽선섭 (공대 61)* 권문웅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김광현 (미대 57) 김동진 (의대 56) 김동환 (약대 56)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홍 (약대 52)*	김보련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선하 (약대 56)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수산 (의대 52) 김수일 (약대 62)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대 56) 김영일 (약대 58)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여훈 (의대 55) 김완주 (의대 54) 김용순 (상대 56) 김용연 (문리 63) 김육현 (의대 59) 김유순 (간호 64) 김유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인형 (미대 59) 김정빈 (약대 54) 김재철 (농대 55) 김종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태일 (공대 68)* 김한철 (의대 56)* 김현준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구 (약대 54) 김희자 (미대 66)* 라준국 (공대 48) 맹석국 (문리 71) 맹서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병갑 (문리 63) 박두선 (공대 68) 박수안 (의대 56)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영태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배병애 (간호 47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김내도 (공대 62)	윤경의 (공대 57)	홍영석 (공대 58)	유성무 (상대 66)	박영현 (약대 68)	한수용 (의대 55)*	마동일 (의대 57)	김명자 (문리 62)	신승하 ()
김동훈 (법대 56)*	원종민 (약대 57)	워싱턴주 WASHINGTON	유영의 (의대 61)*	배성호 (의대 65)	한용오 (보건 70)	성예경 (치대 54)	김승희 (법대 55)	
김명자 (법대 52)	오광동 (공대 52)		윤민자 (음대 65)	손재욱 (가정 77)	손재욱 (가정 77)	한인섭 (약대 63)	이달호 (사대 45)	도태영 (사회 93)
김병호 (의대 63)	오인환 (문리 63)	윤영돈 (법대 59)	송영동 (의대 56)	송영동 (의대 56)	황선희 (공대 74)	이병세 (의대 56)	백산욱 (문리 51)	
김인환 (문리 59)	이건형 (수의 54)	이종석 (의대 54)	송성규 (공대 50)	이종석 (의대 54)		이석형 (사대 56)	성낙준 (사대 68)*	
김용덕 (의대 53)	이경애 (문리)	임수암 (공대 62)	서재진 (공대 47)	서재진 (공대 47)		이항열 (법대 57)	오명순 (가정 69)	
김진수 (의대 60)	이규양 (문리 62)*	주중광 (약대 60)	서종민 (공대 64)	서종민 (공대 64)		한광수 (의대 57)*	이상강 (의대 70)*	
김진은 (사대 55)	이길송 (57)	최재학 (사대 56)	신쌍재 (수의 59)	신쌍재 (수의 59)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길 철 (의대 62)	이내일 (사대 58)	박진수 (의대 56)	신선자 (사대 60)	신선자 (사대 60)			차봉희 (의대 51)	
남춘일 (사대 69)	이문항 (공대 46)*	박찬형 (2016)	신성식 (공대 56)	신성식 (공대 56)				
도상철 (의대 63)	이선구 (인문 65)	변종해 (법대 58)	심영석 (공대 76)	심영석 (공대 76)				
박 업 (사회 80)	이연주 (치대 88)	류성렬 (공대 72)*	안세현 (의대 62)	안세현 (의대 62)				
박인영 (의대 69)	이유세 (사대 72)	이훈도 (공대 56)*	윤정나 (음대 57)	윤정나 (음대 57)				
박일영 (문리 59)	이윤주 (상대 62)*	이원섭 (농대 77)	이규호 (공대 56)	이규호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이인옥 (68)	이화백 (의대 55)	이수경 (자연 81)	이수경 (자연 81)				
박 철 (공대 57)	이재승 (의대 55)	최준환 (농대 58)	이승공 (의대 63)	이승공 (의대 63)				
박 후 (인문 61)	이준형 (치대 74)	하주홍 (경영 77)	전우식 (수의 61)	전우식 (수의 61)				
방정화 (의대 61)	이진호 (공대 46)*	이영재 (상대 58)	전방남 (상대 73)*	전방남 (상대 73)*				
백 순 (법대 58)	임종식 (의대 51)	전기주 (상대 60)	전희근 (의대 54)	전희근 (의대 54)				
서기병 (상대 55)	임창주 (공대 55)	최용천 (의대 53)	정덕준 (상대 63)	정덕준 (상대 63)				
서휘열 (의대 55)	장윤희 (사대 56)		정용남 (문리 60)	정용남 (문리 60)				
석규범 (문리 61)	정계훈 (문리 55)	김인기 (문리 58)	정정수 (의대 56)	정정수 (의대 56)				
송병준 (약대 68)	정원자 (농대 62)	김용재 (의대 60)	정태광 (공대 74)	정태광 (공대 74)				
송윤정 (인문 89)	정평희 (공대 71)	이 관 (공대 55)*	정홍택 (상대 61)	정홍택 (상대 61)				
신영철 (의대 53)	정희연 (의대 66)*	조지아	제갈은 (문리 59)*	제갈은 (문리 59)*				
신용계 (의대 62)	조화유 (문리 61)	GA/AL/MS	조영호 (음대 56)	조영호 (음대 56)				
안선미 (농대 65)	차임경 (가정 77)		조정현 (수의 58)	조정현 (수의 58)				
안세현 (의대 62)	차임경 (가정 77)		주기목 (수의 68)	주기목 (수의 68)				
안승건 (문리 55)	최경수 (문리 54)		조화열 (음대 64)	조화열 (음대 64)				
양광수 (공대 73)*	최규식 (상대 64)*		지홍민 (수의 61)	지홍민 (수의 61)				
유재형 (상대 54)	최길찬 (사대 88)		진병학 (의대 57)*	진병학 (의대 57)*				
유덕영 (공대 57)	최재규 (미대 63)		차호순 (문리 60)	차호순 (문리 60)				
유영준 (의대 58)*	한의생 (수의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무 (상대 63)				
유정식 (수의 60)	한인섭 (문리 55)		최종문 (공대 61)	최종문 (공대 61)				
유홍열 (자연 74)	한정민 (농대 87)		최현태 (문리 62)	최현태 (문리 62)				
	함은선 (음대 77)		한기빈 (공대 52)	한기빈 (공대 52)				

김내도 (공대 62)	윤경의 (공대 57)	홍영석 (공대 58)	유성무 (상대 66)	박영현 (약대 68)	한수용 (의대 55)*	마동일 (의대 57)	김명자 (문리 62)
김동훈 (법대 56)*	원종민 (약대 57)	워싱턴주 WASHINGTON	유영의 (의대 61)*	배성호 (의대 65)	한용오 (보건 70)	성예경 (치대 54)	김승희 (법대 55)
김명자 (법대 52)	오광동 (공대 52)		윤민자 (음대 65)	손재욱 (가정 77)	손재욱 (가정 77)	한인섭 (약대 63)	이달호 (사대 45)
김병호 (의대 63)	오인환 (문리 63)	윤영돈 (법대 59)	송영동 (의대 56)	송영동 (의대 56)	황선희 (공대 74)	이병세 (의대 56)	백산욱 (문리 51)
김인환 (문리 59)	이건형 (수의 54)	이종석 (의대 54)	송성규 (공대 50)	이종석 (의대 54)		이석형 (사대 56)	성낙준 (사대 68)*
김용덕 (의대 53)	이경애 (문리)	임수암 (공대 62)	서재진 (공대 47)	서재진 (공대 47)		이항열 (법대 57)	오명순 (가정 69)
김진수 (의대 60)	이규양 (문리 62)*	주중광 (약대 60)	서종민 (공대 64)	서종민 (공대 64)		한광수 (의대 57)*	이상강 (의대 70)*
김진은 (사대 55)	이길송 (57)	최재학 (사대 56)	신쌍재 (수의 59)	신쌍재 (수의 59)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길 철 (의대 62)	이내일 (사대 58)	박진수 (의대 56)	신선자 (사대 60)	신선자 (사대 60)			차봉희 (의대 51)
남춘일 (사대 69)	이문항 (공대 46)*	박찬형 (2016)	신성식 (공대 56)	신성식 (공대 56)			
도상철 (의대 63)	이선구 (인문 65)	변종해 (법대 58)	심영석 (공대 76)	심영석 (공대 76)			
박 업 (사회 80)	이연주 (치대 88)	류성렬 (공대 72)*	안세현 (의대 62)	안세현 (의대 62)			
박인영 (의대 69)	이유세 (사대 72)	이훈도 (공대 56)*	윤정나 (음대 57)	윤정나 (음대 57)			
박일영 (문리 59)	이윤주 (상대 62)*	이원섭 (농대 77)	이규호 (공대 56)	이규호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이인옥 (68)	이화백 (의대 55)	이수경 (자연 81)	이수경 (자연 81)			
박 철 (공대 57)	이재승 (의대 55)	최준환 (농대 58)	이승공 (의대 63)	이승공 (의대 63)			
박 후 (인문 61)	이준형 (치대 74)	하주홍 (경영 77)	전우식 (수의 61)	전우식 (수의 61)			
방정화 (의대 61)	이진호 (공대 46)*	이영재 (상대 58)	전방남 (상대 73)*	전방남 (상대 73)*			
백 순 (법대 58)	임종식 (의대 51)	전기주 (상대 60)	전희근 (의대 54)	전희근 (의대 54)			
서기병 (상대 55)	임창주 (공대 55)	최용천 (의대 53)	정덕준 (상대 63)	정덕준 (상대 63)			
서휘열 (의대 55)	장윤희 (사대 56)		정용남 (문리 60)	정용남 (문리 60)			
석규범 (문리 61)	정계훈 (문리 55)	김인기 (문리 58)	정정수 (의대 56)	정정수 (의대 56)			
송병준 (약대 68)	정원자 (농대 62)	김용재 (의대 60)	정태광 (공대 74)	정태광 (공대 74)			
송윤정 (인문 89)	정평희 (공대 71)	이 관 (공대 55)*	정홍택 (상대 61)	정홍택 (상대 61)			
신영철 (의대 53)	정희연 (의대 66)*	조지아	제갈은 (문리 59)*	제갈은 (문리 59)*			
신용계 (의대 62)	조화유 (문리 61)	GA/AL/MS	조영호 (음대 56)	조영호 (음대 56)			
안선미 (농대 65)	차임경 (가정 77)		조정현 (수의 58)	조정현 (수의 58)			
안세현 (의대 62)	차임경 (가정 77)		주기목 (수의 68)	주기목 (수의 68)			
안승건 (문리 55)	최경수 (문리 54)		조화열 (음대 64)	조화열 (음대 64)			
양광수 (공대 73)*	최규식 (상대 64)*		지홍민 (수의 61)	지홍민 (수의 61)			
유재형 (상대 54)	최길찬 (사대 88)		진병학 (의대 57)*	진병학 (의대 57)*			
유덕영 (공대 57)	최재규 (미대 63)		차호순 (문리 60)	차호순 (문리 60)			
유영준 (의대 58)*	한의생 (수의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무 (상대 63)			
유정식 (수의 60)	한인섭 (문리 55)		최종문 (공대 61)	최종문 (공대 61)			
유홍열 (자연 74)	한정민 (농대 87)		최현태 (문리 62)	최현태 (문리 62)			
	함은선 (음대 77)		한기빈 (공대 52)	한기빈 (공대 52)			

김내도 (공대 62)	윤경의 (공대 57)	홍영석 (공대 58)	유성무 (상대 66)	박영현 (약대 68)	한수용 (의대 55)*	마동일 (의대 57)	김명자 (문리 62)
김동훈 (법대 56)*	원종민 (약대 57)	워싱턴주 WASHINGTON	유영의 (의대 61)*	배성호 (의대 65)	한용오 (보건 70)	성예경 (치대 54)	김승희 (법대 55)
김명자 (법대 52)	오광동 (공대 52)		윤민자 (음대 65)	손재욱 (가정 77)	손재욱 (가정 77)	한인섭 (약대 63)	이달호 (사대 45)
김병호 (의대 63)	오인환 (문리 63)	윤영돈 (법대 59)	송영동 (의대 56)	송영동 (의대 56)	황선희 (공대 74)	이병세 (의대 56)	백산욱 (문리 51)
김인환 (문리 59)	이건형 (수의 54)	이종석 (의대 54)	송성규 (공대 50)	이종석 (의대 54)		이석형 (사대 56)	성낙준 (사대 68)*
김용덕 (의대 53)	이경애 (문리)	임수암 (공대 62)	서재진 (공대 47)	서재진 (공대 47)		이항열 (법대 57)	오명순 (가정 69)
김진수 (의대 60)	이규양 (문리 62)*	주중광 (약대 60)	서종민 (공대 64)	서종민 (공대 64)		한광수 (의대 57)*	이상강 (의대 70)*
김진은 (사대 55)	이길송 (57)	최재학 (사대 56)	신쌍재 (수의 59)	신쌍재 (수의 59)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길 철 (의대 62)	이내일 (사대 58)	박진수 (의대 56)	신선자 (사대 60)	신선자 (사대 60)			차봉희 (의대 51)
남춘일 (사대 69)	이문항 (공대 46)*	박찬형 (2016)	신성식 (공대 56)	신성식 (공대 56)			
도상철 (의대 63)	이선구 (인문 65)	변종해 (법대 58)	심영석 (공대 76)	심영석 (공대 76)			
박 업 (사회 80)	이연주 (치대 88)	류성렬 (공대 72)*	안세현 (의대 62)	안세현 (의대 62)			
박인영 (의대 69)	이유세 (사대 72)	이훈도 (공대 56)*	윤정나 (음대 57)	윤정나 (음대 57)			
박일영 (문리 59)	이윤주 (상대 62)*	이원섭 (농대 77)	이규호 (공대 56)	이규호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이인옥 (68)	이화백 (의대 55)	이수경 (자연 81)	이수경 (자연 81)			
박 철 (공대 57)	이재승 (의대 55)	최준환 (농대 58)	이승공 (의대 63)	이승공 (의대 63)			
박 후 (인문 61)	이준형 (치대 74)	하주홍 (경영 77)	전우식 (수의 61)	전우식 (수의 61)			
방정화 (의대 61)	이진호 (공대 46)*	이영재 (상대 58)	전방남 (상대 73)*	전방남 (상대 73)*			
백 순 (법대 58)	임종식 (의대 51)	전기주 (상대 60)	전희근 (의대 54)	전희근 (의대 54)			
서기병 (상대 55)	임창주 (공대 55)	최용천 (의대 53)	정덕준 (상대 63)	정덕준 (상대 63)			
서휘열 (의대 55)	장윤희 (사대 56)		정용남 (문리 60)	정용남 (문리 60)			
석규범 (문리 61)	정계훈 (문리 55)	김인기 (문리 58)	정정수 (의대 56)	정정수 (의대 56)			
송병준 (약대 68)	정원자 (농대 62)	김용재 (의대 60)	정태광 (공대 74)	정태광 (공대 74)			
송윤정 (인문 89)	정평희 (공대 71)	이 관 (공대 55)*	정홍택 (상대 61)	정홍택 (상대 61)			
신영철 (의대 53)	정희연 (의대 66)*	조지아	제갈은 (문리 59)*	제갈은 (문리 59)*			
신용계 (의대 62)	조화유 (문리 61)	GA/AL/MS	조영호 (음대 56)	조영호 (음대 56)			
안선미 (농대 65)	차임경 (가정 77)		조정현 (수의 58)	조정현 (수의 58)			
안세현 (의대 62)	차임경 (가정 77)		주기목 (수의 68)	주기목 (수의 68)			
안승건 (문리 55)	최경수 (문리 54)		조화열 (음대 64)	조화열 (음대 64)			
양광수 (공대 73)*	최규식 (상대 64)*		지홍민 (수의 61)	지홍민 (수의 61)			
유재형 (상대 54)	최길찬 (사대 88)		진병학 (의대 57)*	진병학 (의대 57)*			
유덕영 (공대 57)	최재규 (미대 63)		차호순 (문리 60)	차호순 (문리 60)			
유영준 (의대 58)*	한의생 (수의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무 (상대 63)			
유정식 (수의 60)	한인섭 (문리 55)		최종문 (공대 61)	최종문 (공대 61)			
유홍열 (자연 74)	한정민 (농대 87)		최현태 (문리 62)	최현태 (문리 62)			
	함은선 (음대 77)		한기빈 (공대 52)	한기빈 (공대 52)			

김내도 (공대 62)	윤경의 (공대 57)	홍영석 (공대 58)	유성무 (상대 66)	박영현 (약대 68)	한수용 (의대 55)*	마동일 (의대 57)	김명자 (문리 62)
김동훈 (법대 56)*	원종민 (약대 57)	워싱턴주 WASHINGTON	유영의 (의대 61)*	배성호 (의대 65)	한용오 (보건 70)	성예경 (치대 54)	김승희 (법대 55)
김명자 (법대 52)	오광동 (공대 52)		윤민자 (음대 65)	손재욱 (가정 77)	손재욱 (가정 77)	한인섭 (약대 63)	이달호 (사대 45)
김병호 (의대 63)	오인환 (문리 63)	윤영돈 (법대 59)	송영동 (의대 56)	송영동 (의대 56)	황선희 (공대 74)	이병세 (의대 56)	백산욱 (문리 51)
김인환 (문리 59)	이건형 (수의 54)	이종석 (의대 54)	송성규 (공대 50)	이종석 (의대 54)		이석형 (사대 56)	성낙준 (사대 68)*
김용덕 (의대 53)	이경애 (문리)	임수암 (공대 62)	서재진 (공대 47)	서재진 (공대 47)		이항열 (법대 57)	오명순 (가정 69)
김진수 (의대 60)	이규양 (문리 62)*	주중광 (약대 60)	서종민 (공대 64)	서종민 (공대 64)		한광수 (의대 57)*	이상강 (의대 70)*
김진은 (사대 55)	이길송 (57)	최재학 (사대 56)	신쌍재 (수의 59)	신쌍재 (수의 59)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길 철 (의대 62)	이내일 (사대 58)	박진수 (의대 56)	신선자 (사대 60)	신선자 (사대 60)			차봉희 (의대 51)
남춘일 (사대 69)	이문항 (공대 46)*	박찬형 (2016)	신성식 (공대 56)	신성식 (공대 56)			
도상철 (의대 63)	이선구 (인문 65)	변종해 (법대 58)	심영석 (공대 76)	심영석 (공대 76)			
박 업 (사회 80)	이연주 (치대 88)	류성렬 (공대 72)*	안세현 (의대 62)	안세현 (의대 62)			
박인영 (의대 69)	이유세 (사대 72)	이훈도 (공대 56)*	윤정나 (음대 57)	윤정나 (음대 57)			
박일영 (문리 59)	이윤주 (상대 62)*	이원섭 (농대 77)	이규호 (공대 56)	이규호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이인옥 (68)	이화백 (의대 55)	이수경 (자연 81)	이수경 (자연 81)			
박 철 (공대 57)	이재승 (의대 55)	최준환 (농대 58)	이승공 (의대 63)	이승공 (의대 63)			
박 후 (인문 61)	이준형 (치대 74)	하주홍 (경영 77)	전우식 (수의 61)	전우식 (수의 61)			
방정화 (의대 61)	이진호 (공대 46)*	이영재 (상대 58)	전방남 (상대 73)*	전방남 (상대 73)*			
백 순 (법대 58)	임종식 (의대 51)	전기주 (상대 60)	전희근 (의대 54)	전희근 (의대 54)			
서기병 (상대 55)	임창주 (공대 55)	최용천 (의대 53)	정덕준 (상대 63)	정덕준 (상대 63)			
서휘열 (의대 55)	장윤희 (사대 56)		정용남 (문리 60)	정용남 (문리 60)			
석규범 (문리 61)	정계훈 (문리 55)	김인기 (문리 58)	정정수 (의대 56)	정정수 (의대 56)			
송병준 (약대 68)	정원자 (농대 62)	김용재 (의대 60)	정태광 (공대 74)	정태광 (공대 74)			
송윤정 (인문 89)	정평희 (공대 71)	이 관 (공대 55)*	정홍택 (상대 61)	정홍택 (상대 61)			
신영철 (의대 53)	정희연 (의대 66)*	조지아	제갈은 (문리 59)*	제갈은 (문리 59)*			
신용계 (의대 62)	조화유 (문리 61)	GA/AL/MS	조영호 (음대 56)	조영호 (음대 56)			
안선미 (농대 65)	차임경 (가정 77)		조정현 (수의 58)	조정현 (수의 58)			
안세현 (의대 62)	차임경 (가정 77)		주기목 (수의 68)	주기목 (수의 68)			
안승건 (문리 55)	최경수 (문리 54)		조화열 (음대 64)	조화열 (음대 64)			
양광수 (공대 73)*	최규식 (상대 64)*		지홍민 (수의 61)	지홍민 (수의 61)			
유재형 (상대 54)	최길찬 (사대 88)		진병학 (의대 57)*	진병학 (의대 57)*			
유덕영 (공대 57)	최재규 (미대 63)		차호순 (문리 60)	차호순 (문리 60)			
유영준 (의대 58)*	한의생 (수의 60)		최종무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 이름:	영어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 E-mail로만 동창 회보를 받기 원합니다.				
Cell Phone (option):				
주소, 직장, 전화번호 변경 사항 (우측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충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정정합니다.

지난 283호 첫페이지 두번째 칼럼 하단입니다.
"나이 들면 3고가 있대지요?"로 시작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흔히 나이 든 노인에게는 네가지 고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빈고 (경제적인 고생), 고독고, 무위고 (할 일이 없는
괴로움), 그리고 병고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 네가지
고통을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동문들 모두 well aging,
well being, well dying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학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goodfriendinc.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3801	aamkocpa@gmail.com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천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집행부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홍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텍사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IT위원장: 김정현 (공)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yahoo.com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oyoon@hotmail.com	
		차기회장				
SNU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균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해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 (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ATER INFRASTRUCTURE PUBLIC WORKS ENGINEERING FIRM

2018 Happy New Year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Since 1979, LEE & RO Inc. provides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ing services for public water agencies, municipalities and sanitation agencies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WWW.LEE-RO.COM

노명호 (공대61)

M. Steve Ro, P.E.
President / CEO